朝鮮日報
夕刊 十五日(月)
本紙朝夕刊十二面
發行兼編輯人 方應謨 印刷人 崔從禮

中央軍의 進擊으로 西南軍士氣萎縮

陳濟棠氏、中央에 妥協키爲해 親書携行한 密使派遣?

【廣東十四日發同盟】退却을 開始한 廣東軍의 先鋒部隊第四師는 郴州縣城 內外에 留하고 第五第六 兩師는 自省을 中心으로 湖南에 留하고잇다 他方 夏威氏의 廣西第十五軍은 先鋒部隊가 後退하엿슴으로 祁陽의 主力은 零陵에 後退集結하엿다 廣東廣西兩軍은 모다 優勢한 中央軍에게 全面的으로 壓倒되여 結局 가장 不利한 防禦戰을 取할수박게 업스리라고 觀測된다

【廣東十四日發同盟】張達氏麾下의 廣東第二軍은 優勢한 中央軍에게 壓迫되야 十三日夜부터 十四日朝까지에 來陽方面으로부터 永興郴方面으로 또 廣南軍은 衡陽에서 祁陽에 向하야 退却을 開始하야 이제 이르러 西南軍은 全然守勢에 轉하게되엿다

【上海十四日發同盟】廣東의 陳濟棠氏는 十四日 國民政府當局에 密電을 보내어「廣東軍은 進擊할 意思가 업다」는 것을 纏纏陳述한後 妥協交涉의 使者로서 孫家哲氏를 派遣한다는 旨를 傳하여왓다 孫家哲氏는 陳濟棠氏의 親書를 携帶하고 廣東을 出發하야 上海로 向하는 途中에 잇는 模樣인데 具體的 妥協條件을 携行하는 것이라고 觀測된다

西南側作戰의 突然變更理由

【廣東十三日發同盟】西南軍이 突然當初의 作戰을 變更하게 된 原因은 左와 如하다

一、廣東軍內部에 余漢謀、繆培南氏等과 如한 非戰論分子가 잇는것

二、余漢謀氏가 監禁되자 他의 將士는 連名으로 余漢謀氏의 自由를 陳濟棠氏에게 强要한것

三、第一集團軍도 同樣의 手段을 講究하지 안흘수업게 되엿슴으로 積極性이 缺乏하야 廣東軍은 前記理由로 廣西軍의 뜻과 가리되지 못하야 白崇禧氏의 積極性作戰에 一大挫折을 招來하게되엿것

四、對湖南軍事行動이 相當한 程度로 發展될 豫定이든 二日附通電이 너무일너 軍事行動의 開始가 通電과 同時에 되엿슴으로 中央側은 豫想以上의 大部隊를 湖南、江西에 集結식혀 中央軍의 兵力이 兩廣에 比하야 멀리 强大하게된것 그리하야 西南軍의 對湖南積極戰術에 大挫折을 齎來하야 福建、江西、湖南、徽州各方面에서는 守勢를 取할수박게 업시되엿다

天皇陛下 地方民情聽御

【東京電話同盟】天皇陛下께압서는 十五日正午 宮中豐明殿에서 地方長官會議會同의 池田北海道長官 橫山東京府知事以下 各府縣知事를 부르시압고 御慰勞의 軫念으로써 午餐의 陪食을 吩咐하압섯다 此日梨本元帥宮殿下께옵서도 御臨席하시고 廣田首相、潮內相、鍋島、湯澤兩次官、肝付參與官、唐澤警保局長、大村地方局長等 內務首腦部及松平宮相、鈴木侍從長、宇佐美侍從武官長等도 參列 一同御陪食의 光榮을 浴하얏다 食後千種間에서 茶菓를 賜하압신後 다시 陛下께옵서는 廣田首相、潮內相、鈴木侍從長等 侍立下에 各地方長官을 한사람式 御前에 부르시와 親히 地方의 民情、產業、敎育等 諸般事情에 關하야 聽御하시고 今次 總選擧에在한 肅正狀況或은 農山漁村의 振興狀態等 御下問을 賜하압섯는데 各長官은 恐懼하야 各其奉答하엿다

皇后陛下 大宮御所에 行啓

【東京電話同盟】皇后陛下께압서는 十五日午後一時三十分宮城御出門 御慶事以來 처음大宮御所에 行啓하시와 皇太后陛下와 御對顏、御인사를 交하압신後 御歡談、同四時御歸還하압시엿다

墺슈슈닉氏의 獨裁强化 ＝墺國防派의 首領이며內閣副總理의 地位에잇서 伊墺洪三國聯繫의中心이든 슈타렘벍公을閣外로내몰고 首相國防、外相이 內相의 四相을 兼攝하야 中歐의 뭇소리니로서 登場한 슈슈닉氏가 閣僚와 祖國戰線의 重要人物을 모허노코 國防團의 解散決意를 披瀝하는 光景 (五月十九日)

中央對西南間의 妥協交涉進捗?

軍事費의 支給額折衝

【上海十四日發同盟】中央政府와 陳濟棠氏와의 和協交涉은 陳濟棠氏代表譚德昭氏와 蔣介石氏와의 間에 着着進捗되고잇는데 從來西南側에 好意를 가지고잇든 王寵惠氏는 問題의 根本的解決을 하기爲하야 廣東、廣西를 아울러 攻擊할것을 進言하엿스나 廣西省一省을 指目하는 蔣介石氏에 容認되는 아니 模樣인데 譚德昭氏는 目下主로 財政問題卽 中央이 西南軍에 支給할 軍費額에 對하야 折衝하고잇다 그리고 陳濟棠氏의 代表는 數日中에 南京에 到着할터이다 이리하야 七月十日 二中全會를 압두고 中央、廣東間의 妥協折衝은 本格的으로 進捗되게되엿다

新政遂行의 地方長官會議

【東京電話同盟】特別議會의 뒤를니어 十四日에 召集된 地方長官會議는 十五日午前十時부터 永田町 首相官邸에서 第一日의 會議를 開催하엿다 政府側에서 廣田首相以下 各閣僚 (島田農相旅行欠席) 藤沼書記官長 次田法制局長官 吉田調查局長官 石田警視總監 中島憲兵司令官 地方長官側으로부터 橫山東京府知事以下 各府縣知事 (白松大分縣知事는 身病으로欠席 淵上總務部長代理出席) 及 朝鮮으로부터 全羅南道知事近藤常尚 黃海道知事鄭僑源 臺灣으로부터 台中州知事日下辰太等 三氏가 傍聽次로出席 劈頭에 廣田首相으로부터 庶政一新에 邁進할 決意를 披瀝하고 各地方長官의 努力을 期待한다는 旨의 訓示가 잇고 有田外相 林法相으로부터 對外諸關係 司法警察에 關한 訓示가 잇슨後 同十二時半散會하엿다 一同은 宮中에 參內하고 御陪食의 光榮에浴하엿다

西南側抗日出師·全面的失敗形勢

北中將領은連名하야反對通電 各界要人은問責電報

【廣東十五日發同盟】西南側은 抗日出師를 宣傳하야 無抵抗의 湖南에 侵入하야 氣勢를올니고 잇섯다 도리혀 萬福麟 其他北中將領百五名의 連名反對電報를 爲始하야 全國軍、政、學、商各界의 要人으로부터 問責電報가 頻頻한 結果를 招來하고 一方中央軍은 兵備를 增大하야 西南派武力壓迫의 손을 解弛치안코 祁陽에 集結한 中央軍의 大部分을 十五日夜

一、衡陽에서 來陽永興에 向케하고

一、祁陽에서 鎭陵에 向하야 行動을 니르키고

兩廣을 壓迫하고잇서 形勢逆轉으로 兩廣軍은 旗를말어 漸次湖南省外에 撤退하려고 하고잇다 西南軍은 蔣介石氏의 巧妙한 全軍의 總動員과 武力壓迫으로 西南軍을 困難케하고 四面楚歌에 잇는 兩廣軍은 그 活路도 發見치못하야 全面的失敗의 氣色이 濃厚케되엿다

松岡滿鐵總裁·川越大使와會談

【東京電話同盟】松岡滿鐵總裁는 十四日에 歸東하야 同夜八時 十六日赴任할 川越新駐中大使를 麴町私邸에 招致하고 晚餐을 함께하면서 北中問題及 南京西南兩派의 問題 今後의 推移等에 對하야 意見을 交換하엿다

英驅逐艦流用問題 回答手交

原則的으로承認

【倫敦十三日發同盟】倫敦駐箚日本代理大使麿井啓之助氏는 十二日午後 英國外務省에 크레기－參事官을 訪問하고 驅逐艦超過噸數保有及 巡洋艦流用에 關한 英國政府의 要請에 對하야 日本政府의 回答을 手交하엿다 回答內容은 發表치안흐나 日本政府는 原則으로 英國政府의 要請을 容認하야 左의 內容을 表明한것이라고 解釋된다

一、英國政府가 驅逐艦超過噸數四萬噸을 保有하고 甲級巡洋艦四隻을 乙級巡洋艦에 流用하기를 바란다는 要請에 對하야 日本政府는 原則으로 異議가 업다

二、但英國政府가 超過噸數를 保有하는 以上 日本政府도 潛水艦及 驅逐艦에 關한 倫敦條約의 噸數制限에서 開放되기를 要求한다

英國政府는 이미 米國政府로부터 同樣의 回答을 入手하엿서도 日本兩國政府의 原則的承認을 어든셈이다 그 要求實現方式은 米國政府의 回答趣旨에 따라 다시 에스카레타條項으로 援用하리라고 觀測된다

蘇聯壓力에 對應할 軍備增强이 絕對必要!

國防問題로 重大進言乎

寺內陸相, 近日中廣田首相에게

【東京電話同盟】陸軍은 最近異常한 速力으로써 本國의 軍事的勢力의 增强을 圖하야 遂次 極東의 軍略을 行하려하는 蘇聯邦의 極東積極策에 關하야 至大한 注意를 拂하고 帝國防의 安固를 期하는 見地에서 軍備充實의 要를 痛感할 저거도 最短期間內에 모든 部門에잇서서 이에 對應할 綜合的 國防力의 强化를 實現하려하고잇다 卽 蘇聯邦은 帝國主義國家의 侵略에 備하야 着着軍備充實을 圖하고 이미 滿洲事變當時 五十萬內外에 不過하든 赤軍正規兵이 昨年度에잇서 九十餘萬에 增加하고 本年度에잇서서는 百三十萬에 增强되엿슬뿐더러 新銳兵器의 充實에 全力을 傾注하야 今年度에는 百四十八億의 彪大한 軍事豫算을 計上하고 脅威的性能을 가진 飛行機快速戰車部隊의 擴充强化에 努力하고 잇는바 現在에잇서 各種飛行機約五千機 戰車四千台及 百個師團을 가진 彪大한 軍備를 形成하게되엇다 그리고 極東에서 事端이 發生할 境遇에는 西部西伯利亞方面其他 西에잇는 兵力으로 卽時動員하야 極東에 輸送하고 極東特別赤軍과서로 提携하야 共同作戰을 取하려 하고잇다 그 輸送關係는 西比利亞 鐵道複線工事 完成을 急히 하는外에 輸送力의 增大를 企圖하야 西比利亞線에 併行하야 千數百粁의 鐵道建設에 着手하엿고 그리고 西伯利亞線에 適한 支線이 完成될을 따라 더욱 極東作戰에 適進을 期하기爲한 重輕工業이 第一次五個年計劃에 依하야 돈바스重工業地帶를 第二次五個年計劃에 依하야 우랄크스네츠重工業地帶를 完成하고 現下進捗中인 부리야리畔의 鑛工業地帶 앙가라 地方의 水力電氣發電施設 콤솜체스크及 뉴리스크의 兵器廠 하바롭스크의 軍需工業 이르쿠츠크 自動車飛行機工業等의 完成을 보게될時에는 蘇聯邦은 極東에잇서서 兵器軍需品의 大部分의自給自足이 可能하게될것이다 如斯한 軍備의 增强은 그目標가 極東에 잇서서는 日本을 指目하고잇는것은 明瞭한대 이에 對한 日本의 準備는 甚히 貧弱하야 이대로 推移할時에는 蘇聯의 極東에잇서 軍事的 支配權은 顯著히 增大될것은 必然的으로 나아가서는 日本의 極東平和를 確保하는 見地에서 政治的發言權을 制約당하게될는지도 알수업는바 防共日本의 前途에 容易치안흔 障碍를 招致하게되여 我國으로서는 重大決意로써 蘇聯邦의 이動向을 重大視하고 日本의 正當한 發言權의 確保를 期할것이라하야 蘇聯의 軍事的壓力에 對應할 軍備를 可及的速히 整備增强한다는 國防上不可避한다는 結論에 到達되엿슴으로 陸軍當局은 右結論에 基하야 異常한 決議로써 目的達成에 邁進하기로되여 寺內陸相으로부터 이듯을 廣田首相에게 强硬進言을 하게될터이다

나치스主義는 國內消費品이오 輸出品이아니다!

但西歐에 襲來하는 赤色脅威斷乎防止

獨逸宣傳相의 演說

【힐데스하임十四日發同盟】젭벨스宣傳相은 十四日午後 힐데스하임에서 열닌나·치스黨大會에 臨하야 世界에잇서 나치스政權의 維持를 强調하야 如左히述하엿다 나치스政權下에잇서 獨逸은 바야흐로 歐洲大陸에잇서『秩序』의 本據가 되게되엿다 諸隣邦의 誤謬、過誤를 決코 干涉치안는다 그러나 나치스主義는 輸出品이아니라 專혀 獨逸國內의 消費를 對象으로함으로 나치스政權은 나치스主義를 外國에 流布하려고는 생각지안는다 그러나 西歐에서 襲來한 赤色의 脅威에 對하여는 斷乎防禦策을 講究하기爲하야 라인란드武裝을 斷行하게된것이다 (寫眞은 괴벨스氏)

英對伊軟化原因은 戰略上不利關係

伊植民地에挾擊되고猶太人、埃及問題때문

參謀本部、政府에警告

【倫敦十五日發同盟】聯盟理事會를압두고 英國政府는 從來의 强硬策을 放棄하고 制裁解除에 同意하기로 決定한模樣이다 消息通側에서는 英國政府의 軟化原因으로 左의 諸原因을 指摘하고잇다

一、에디오피아帝國遠征의 前後를 通하야 伊太利政府는 大軍을 動員하야 各植民地附近 地中海를 中心으로한 英國의 戰略的 聯絡地帶 말타島 埃及스에즈運河間의 連絡은 伊太利本國과 伊太利領리비아、에디오피아 소말리란드各植民地에 挾擊되야 顯著히 脅威를 受하게되엿다

一、一方伊太利空軍、潛水艦及輕水上艦艇을 主體로한 伊太利水上艦隊는 地中海要衝에 待機하면서 地中海上에 集結하여잇는 英國本國艦隊에 對하야 何時에나 莫大를 浴케할수잇는 體勢를 示하고잇다

一、그리고 팔레스티나地方에잇서 아라비아人과 猶太人과의 鬪爭이 끗나지안코 와프드黨을 中心으로한 埃及政權은 國權回復에 狂奔하고 잇든바 英國政府의 勢力은 逐次 埃及으로부터 撤收할수박게 업는 現狀이다

以上의 情勢에 地中海를 中心으로한 英國屬領에 駐屯하는 陸軍軍人 官吏 商人等은 極度의 不安을 示하고잇는바 뭇솔리니首相이 다음에 如何한 一石을 던질는지 念慮하고잇다한다 英國參謀本部도 事態를 重視하고 政府當局에 對하야 重大警告를 與하엿다한다 英國政府는 傳統的老巧한 外交政策을 踏襲하야 이든外相은 純理派를 抑壓하고 制裁案을 撤回하야 地中海上의 緊迫된 情勢를 緩和하는 同時에 聯盟改組에 對하야 뭇솔리니首相의 支持를 確保할 方針이라고 觀測되는데 機敏한 英國商人은 制裁撤回를 豫想하고 벌서부터 羅馬에 進出하야 待機하고 잇다고 傳한다

小協商國間 軍事條約을 締結

【부하레스트十四日發電通】유고슬라비아及 체코슬로바키아參謀本部代表는 十四日 부하레스트에 到着하야 루마니아參謀本部에서 小協商國三國會議를 開始하엿다 그內容에 關하여는 當局은 一切言明을 避하고잇는데 三國間 互助的精神을 基礎로한 軍事的相互援助條約을 締結하리라고 觀測된다

北平의 學生團 對日宣戰決議

【北平十四日發同盟】十三日午前 北平六個所에 亘한 街頭排日로 公安局에 檢束된 二十七名의 學生도 大部分 釋放되엿다 十四日 鎭靜된 學生團은 對日宣傳外에 三日間休校를 決議하야 아직도 不穩한 空氣를 釀成하고잇다

新時代에 適應한 法令의 改廢斷行

【東京電話同盟】政府에서는 庶政一新政策을 各方面에 撤底케 할것이라는 見地에서 調查局及 法制局으로하여금 調查硏究케하고잇는데 特히 法令自體는 必要에 應하야 改正又는 制定하기爲하야 날근法令中에 無用의 長物로되여잇는것과 또 時代에 適應치안는것等 相當히 만흠으로 廣田首相은 이機會에 날근法令의 改廢整理를 斷行할決意를 하고 法制局에 對하야 至急調查한後 具體案作成을 命하엿슴으로 法制局에서 立案을 急히하고잇다

上海서 武官會議開催

【上海十四日發同盟】蔣介石氏와의 會見을 完了한 大使館附武官 喜多少將은 今井北平駐在武官을 帶同하고 十四日午後 上海에 歸着하엿는데 十五日午後 武亭路武官官邸에 宇都宮、佐方兩少佐를 加하야 協議會를 開하고 南京에잇서 中國側과의 折衝에 再檢討를 加하고 다시 外務海軍側과도 重要協議를 遂할터이다

八面鋒

◇無產者獨裁의蘇聯邦이 新憲法을 採用하야 議會制度를 實施하기로되얏다고。

◇獨裁보다는 亦是 民主主義가 自由스럽다는말인가, 뭇솔리니의 兼任辭退와 아울러 獨裁戰線에 兩大異狀。

◇데일리、뉴－스社長 녹스氏 米國副大統領候補로 共和黨에서 指名。

◇記者出身의 首相大臣은 뭇솔리니를爲하야 各國에 相當히 만치만 操觚界의 快事。

◇新銳爆擊機 百九十台製造를 米海軍當局이 發注。

◇軍備는 國內消費事業이라는角度로보다하면 勞働者를爲하야 賃金푼이나 푼푼하겟군。

中風 高血壓 腦病과 『濁血』의 關係

新療法 血液의 大掃除는 무엇과

座談會

出席者
佛國理學博士 今津先生
農學士 今津先生
大阪每日 飯盛氏
東京日日 三原氏
讀賣新聞 森氏
報知新聞 西岡氏
雜誌靑年 大迫氏

飯盛 장마때는 뇌일혈과 중풍되는병이 특히 만흔것가튼데 어떠사람이 이병에 걸립니까

今津佛理博 이병은 술、연초、림병、매독、신장병、당뇨병、변비편식、대변、난산、염려과로하는 사람이 걸립니다.

그리유는 자동독소때문에 혈액이 탁하야 순환이 조치못하게되어 동맥경화로부터 고혈압으로 진행하기때문에 이러한분은 최후로 뇌일혈중풍으로 죽습니다.

三原 무서운 뇌일혈、중풍에 걸리기전에 신체에 무슨 변조가 이러날것인데 그것으로 뇌일혈을 미연에 방지할 방법은 업습니까

今津佛理博。 뇌일혈이 돌발하기전에 반듯이 자각증상이 나타납니다、즉 두중·상기·현기·이명·견벽통·요통·어질증·불면·동기·서식·성욕감퇴·수족이 떨리면서 마르는것등이 그전조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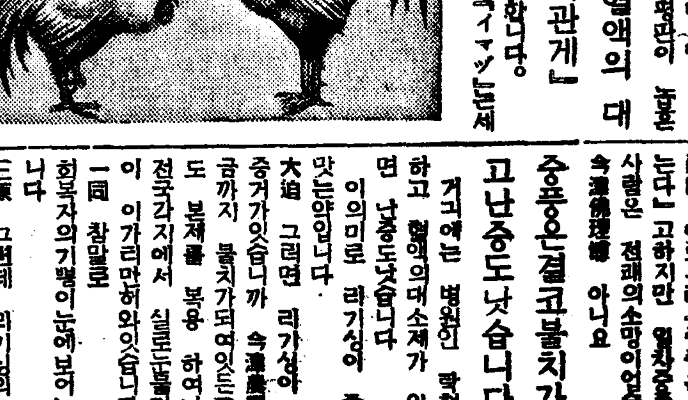
이예방과 치료에는 일시적인 리뇨병약과 혈압강하제만으로는 근치하기어려우므로 아무래도 병의원인이되여잇는 탁혈을 정화하지안코면아니됩니다.

今津農學士 즉「혈액의대소제를 하여근치되는것입니다.」

木村 최근비상히 평판이 놉흔「리끼싱과 혈액의 대소제와의 관계」에대하야 설명을원합니다.

今津理博、 리기싱「イマツ」는 세포의활동소(호르몬)을 주제로하고 다시 (효과를 배가하는 비타민B를 다량으로 포함한치료제입니다.

본제를 복용하면 먼저세포의 활동이 왕성하여지고 전신의독을 해소하고 탁혈을정화합니다、즉혈액의대소제가 완전히됩니다 따라서동맥경화가낫고 혈압도떠러지는고로 전기의불쾌한 증상이치유되고 뇌일혈、중풍을미연에방지하고 도리어나중것도깨끗이합니다



西岡 예로부터「중풍은 낫지안는다」고하지만 리끼싱으로 중풍에걸린 사람은 전쾌의소망이업슬까요

今津佛理博 아니요 중풍은결코불치가아니고난증도낫습니다

거긔에는 병원인 탁혈을정화하고 혈액의대소제가 완전히되면 난증도낫습니다

이의미로 리기싱이 중풍에꼭 맛는약입니다.

大迫 그러면 리기싱이 잘듯는 증거가잇습니까 今津農學士、 지금까지 불치가되여잇든고질자도 본제를 복용하여낫엇다고 전국각지에서 실로눈놀겨오례장이 이가리만히와잇습니다

一同 참말로

三原 그런데 리기싱의 정가와 판매방법이 어떠케되여잇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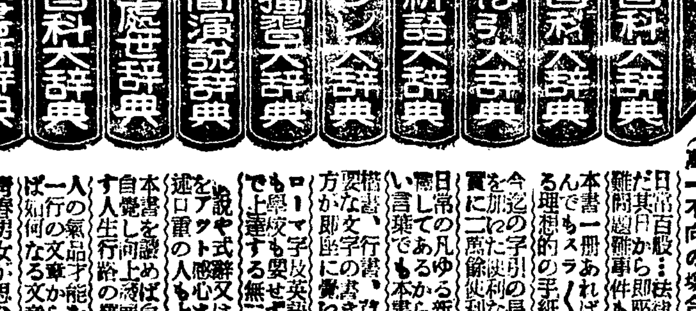
今津農學士
이백정 일원오십전
오백정 삼원오십전
천정 륙원오십전
으로전국약점에서판매합니다 그리고 폐연구소에 신입하는분은 설명서와양생법도드립니다

飯盛 여러분감사합니다.

大阪市大仁本町、鯛取粉本舖今津化學硏究所에서한 좌담회발취

殘本處分 大投賣斷行

▶辭典拾冊合本タダの金一圓◀



▽左の大評判の模範辭典十冊合本定價十圓の處今回整理の爲め只の一圓に投賣す(前金註文は荷造送費廿六錢)代金引替は辭典送れとハガキで申込次第荷造送費共一圓四十五錢で送る註文あれ、本書は最新判クロース金文字箱入奨本ありふれた粗本に非ず (萬一不向の場合は返金す)

日常百般…法律顧問書翰つんだ其日から即座に役に立つ難問題難事件も忽ち解決

本書一冊あれば手紙百般何んでもスラ〳〵と即座に書ける理想的の手紙大辭典なり

今迄の字引の長所に新考案を加へた便利な大辭典網羅數實に二萬餘便利重寶な辭典

日常の凡ゆる新語を一々解說してあるからどんな新しい言葉でも本書一冊で判る

楷書、行書、草書等現今必要な文字の書き方やくづし方が即座に覺えらる大辭典

ローマ字及英語獨習に先生も學校も要せず僅か一ケ月で上達する無二の獨習書也

說や式辭又は挨拶が人々をアット感心させる優秀な演述口重の人も上達自由自在

本書を讀めば自己の瞞過を自覺し向上發展の道を體得す人生行路の羅針盤なり

人の氣品才能を評價さるも一行の文章からだ本書あれば如何なる文章も自由自在

靑春男女が思ひのまゝ心のまゝを赤々に告白せる戀愛の手紙集めて本書に充ち溢る

◆大好評！禮狀續々到着す！大好評の模範日記を右辭典註文に限り特別景品として同封一既代進呈

▼合本ですから一冊分賣は出來ません

特別景品 無代進呈 實用模範日記

發賣元 大阪東淀川區木川西町 振替大阪五六〇一四番 現代出版社

歐米各國世界第一特効藥完備
光線科 內科 米國生物醫學士
韓箕道醫院
京城鍾路四丁目コタ公園正門東側 電話光化門③一八七八番

電醫養成 (醫師同樣聖業 全國無試驗開業)
東京電醫學校直系
朝鮮高等電醫講習院
(規則書送呈)

桃花劇場 麻浦桃花町 電話龍山二三番
六月十五日晝부터三日間 料金 階上二十錢 階下十錢 均一
콜럼비아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十三日의 殺人 主演 아돌프 만주氏
西部大活劇 荒武者三銃士 主演 렘라이氏
大都映畫社超特作サウント版! 赤誠心 監督 吉村操 ハヤブサヒデト氏主演

第一劇場 鍾路五丁目 電話光一一四番
六月十五日晝間부터三日間大公開 每日三回晝夜興行 正午十二時부터六時半까지續映 夜間八時 大衆料金 階上十五錢 階下十錢 均一
콜럼비아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大名篇 나이트俱樂部
現代劇 孤島의 勇者 主演 水谷八重子
大活劇 巨人突貫 主演 월리암보이드氏

癩患者誘拐風聞眞相
全部가 流言蜚語
巷間傳信은 愚의 極
터문이업는 妖言에 속지 말라!
浮動하는 都市人心理

요지음 서울거리에는 문둥병환자가 만히 도라다니면서 어린아이들을 꾀여다리고 간다는소문이 자자하야 이소문은 작구끄리를물고 이곳 저곳으로 전해퍼저서 자못 인심에 불안을 어르키고잇다 그러나 긔자가조사한바로 보아서는 아이를다리고갓다든가 갈뻔햇고 잇섯다든가하는 소문은 전연 터문이업는 허설이오 엄마전보다 문둥병환자가 서울거리에 더만히거러다니는것은 틀림업는 사실인데 서울안에 약삼십명 가량의 문둥병환자가 밥을 비러먹으며 다니고잇다 문둥병환자는 불상한 병자로 일반민중은 그들을동정하야 될수잇는대로 경찰당국으로 하여금 적당한처치를 하도록하는것이조켓다

浪說을맨들어낸 怪中年女嚴探中
常識으로미더지지안는風說에 一般은공연한겨정

요사이 날이대단히 가무는것도 금년이 병자년(丙子年)인때문이오 병자년에는 반듯이 란리가 나떠니 콘병이 도녀니하고 한참떠드는이때 작금경성시내에서는 출처모를 류언비어가 방송되여 어린자제를둔 가정에서는 도모지 마음을 펴히 놋치못하며 유치원이 보통학교에 가는 아동을가진 부형들은 전전긍긍하는상태이며 인심은 극도로흉흉하고잇다 그리고 어제는방산정(芳山町)에서 문둥이가 아해에개빵을 사주며 데리고가다가 빼앗겻다는등 오늘은 동소문파출소(東小門派出所)에 어린아해업은 문둥이가 잡혀왓다는등이러케 시민의 불안에 박차를더하고 잇스나 이것은 모든것이 정변 허무맹랑한 랑설에 불과한것으로 이제 이무서운 류언비어의 출처를 차저보건대 경긔도 광주초월주재소(廣州草月駐在所) 관내에 나이사십가량되는 괴녀가낫하나 이런허설을 방송하고 도라다니며 심지어 모지에갓다가 문둥병걸린 ○○군이 경성시내에 구천명이나 들어와 시내각처를 횡행하며 어린아해들을 마음대로 잡어먹고잇다는 등 상식으로는 도저히 판단할수업는 방송을하며 도라다니는 사실이 판명되여 지금 그괴녀를 적극적으로 수색중이라하니 시민여러분은 이런엉터리업는 류언비어에 조금이나 불안을 늣길필요가업다

嚴重取締하겟다
趙保安課長 談

문둥병자가 아이들을 꾀여가는 등 기타 이러니 저러니 하는 소리로 터문이 업는소문을 전파하야 인심을 소동시키는 사람은 엄중히 취조할 방침이올시다 경성부민은 랭정히 생각하야 불상한 병자에게 손을대거나 폭행을 하지말기를 바래며 그들에대한 처치는 위생과당국에서 적당한 방법을 강구하기로 되엿습니다

小鹿島에 "問議中이다"
道衛生課當局者 談

서울거리에서 문둥병환자들이 야기거리로삼아 인심이 흉흉하고잇스므로 경찰당국에서도 자못머리를알코잇는데 십사일 경기도경찰부위생과 당국자는다음과가티 이야기한다

경성시내에 별안간에 문둥병자가 떠부려서 그런것도 아니오 어데서 어떤 못된사람이허무한 소문을 전파시켜서 공연히소동을 이르키고 잇는것인듯합니다 어쨋든 이런류언비어를 방지하기 위하야는 문둥병자를 처치할 방책박게 강구할수업는데 갑작이 어떠케하엿스면조흘는지 방책이 업습니다 소록도(小鹿島)에 수용할수 잇슬가하야 전보로써 문의하고잇는중이올시다

(십오일아츰 종로오정목에서헛소문으로 소동하는군중)

投身刹那에 救助바든魔法師

보름날 새벽한시이십분쯤되여 한강(漢江)흘재인도교 새로놋는다리란간에서 어떤 사나이가몸을 날리여 뛰여드러가려는 위험한 순간에 그곳 공사장인부가 이광경을 보고 달려가 다리를 붓잡고 느러진결과 뜻을 달치 못햇는데 이사람은 시내수정(壽町)삼십칠번지 청목상회(靑木商會)점원 박수동(朴壽同)(三二)으로 십수년동안이나 어떤 곡마단의 마법사(魔法師)로잇다가 부랑한 친구의 꼬임을 바다 절도질을 하고 서대문형무소(西大門刑務所)에서 징역일년을 치르고 지난 오월 열흘날에감옥을 나오는길로 압서적은청목상회에 취직을 하기는햇스나 자긔가 전과자라는것을안주인은 물론 동무들까지도 조소를해서 죽으려든 전날에는 쪼차내이기까지 하므로 갓득이나 병으로 고통을 밧고 나려오는데다가 또 전과자라는 루명으로 세상사람의 조롱거리가 되는것을 비관한끄테 그가리 죽으려하든것이라한다

前身女給이 幻滅의 飮毒

십오일 새벽 삼판통(三坂通)칠십구번지 량순자(梁順子)(二三)(假名)는 그의동무인 황금정(黃金町)삼정목정파애(鄭坡愛)(二二)(假名)의 집을차저와서 그가 업는 사이에 다량의카루모진을 먹고 자살하려는것을 맛츰도라온 정파애가 발견하고 곳부근 본전(本田)의원에 입원하야 응급치료를 바든결과 곳회복되엿다는데 자살원인은 련인과의 동거생활에 환멸을 느낀까닭이라한다

麗水濟州島間 郵便線路開設

전남 려수(麗水)와 제주도(濟州島)와의 사이에또 십륙일부터 우편선로(郵便線路)가 개설되게되엿다 종래에제주도에가고오는우편물은 목포(木浦)로 부터 한달에 이십이회의 왕복긔선편으로 송달되고잇섯는데 제주도와 부산(釜山) 마산(馬山) 려수방면과는 장사거래와 기타밀접한관계에 잇스므로 체신국(遞信局)에서는 려수로부터도 한달에 십오회의 왕복긔선편에 우편물을 운송하기로 결정하고십륙일부터 실시하기로 되엿다

지푸데리아만激增
其他傳染病은減少

경기도경찰부 위생과에서 조사한바를 보면 다른 전염병은 작년보다 주러젓스나 「지푸데리아」만은 엄청이나 예년보다 만히 생겻다한다 작년동기에 현재로는 이백이십오명이엿는데 금년에는 벌서 이백사십구명이나되며 특히지푸데리아는 환자백명에 대하야 이십이명이나 사망하게 되여 그사망률이 만하서 류행성이하선염(流行性耳下腺炎)이 다음가는 노픈 사망률을 내엿다한다

그래서 오는십육일부터 경기도내에서 합계 이만륙천명에게 그예방주사를 실시할터이라는데 초등학교 삼년생이하의 생도들에게 실시하리라한다

裁判事務의幅輳로
咸興에覆審法院
法務局에서決定하는대로
明年度에豫算要求

최근수년동안에 북조선지방의비약적발전에따라 함남북 량도의 재판사무도 급작히 만허짐을뿐 아니라 경성복심법원의 관할구역이 너무광범한관계로 경성복심법원의 사무까지 너무복잡하게되여감으로 법무국에서는 일즉부터 함흥(咸興)에 복심법원을 증설할필요를 늣기고 조사하여왓다 그런데최근에는 함흥지방에서 복심법원신설에 대한요망도 만흠으로 법무국에서도이에대하야 다시고려할필요가 잇다하야 청진(淸津) 함흥량지방법원관내의 사건으로 공소(控訴)하는사건수등에관한 조사를하고잇서 법무국의 국의(局議)에서 결정을 보면 명년도예산에 이에대한 요구를 하게될듯하다 그리하야 함흥에 복심법원이 신설되면 복심법원의 관할은 경성 경기 충남북과 강원도의 일부를 또 함흥은 함남북과 강원도의 일부를 관할케될것이라한다

鍾路署事件
取調一段落
安、李兩氏도送局?

괴보=시내종로서 고등계에서 지난달 하순부터 검거에 착수하야 취조중이던 항주군관학교(杭州軍官學校)학생 김재형(金在澄)등에 관한사건은 그동안검거범위가 점점 확대되여 그들 군관학교학생들이 조선에 잠입하야 군관학교 비행과(飛行科) 지원자를 모집하느라고 직접간접으로 접촉한 인물들이 검거되엿는데 그중에는 중국에잇는 어떤사람에게 소개장을 써주엇다는 혐의로 리승복(李昇馥) 안재홍(安在鴻)씨도검거되고 시내는 물론 멀리신의주(新義州) 대구(大邱)에까지검거의 손이 뻐처나가 지금까지 십여명의 검속자를 내엇는바 이제그사건전모가 모조리 판명되여 검거와취조가 일단락을지은모양인데 그서에서는 방금 서류를 수습하야 이달하순경에는 송국할예정이라한다 피검자중에 리원혁(李源赫)씨등수명은 수이 석방될듯하며 안재홍 리승복량씨는구속되여 송국될모양이라고 한다

水王産婦人科 醫學士 李麟杰

黃金町에大火
朝日組택시서發火로
隣店皿軒까지延燒

십오일 오후두시반경 황금정삼정목이백구십일번지 조일자동차부(朝日自動車)에서 불이 이러나 마침 가문끄치라 삽시간에 불은 전체를뭉라부터 방금(오후세시)맹렬히 타든중인데 소관본정서와 소방서에서는 경관과 소방수다수가 출동하야 진화중이나 아즉원인과손해는 알수업다

그리고 자동차 차고인마치 휘발유에 저장이잇섯슴으로 불은 휘발유통으로 옴겨부터 그이웃집네곳까지 옴겨부텃다

平南道內서도
普天敎徒大彈壓
集會、募金行爲禁止

【平壤】평남도경찰부에서는 도내의보천교(普天敎)에 대탄압을 개시하기로되여 금후 동교도의집회 모금기타의 전반행동에 대하야 일대탄압을 가하게되여 관내각서에대하여 지급통달한바 잇섯는데 평남도내에는 보천교가십팔개군에 일천사백명의 교도를 가지고 상당한 세력을 가지고 잇섯스나 이번의 탄압으로고성낙조의 감이업지안케되엿다

米一叺16圓30錢
今年에들어서서다섯번재暴騰

쌀갑시 또올랏다 작년에일본내지가 흉변이엇든관계로 원체쌀이넉넉지도 못한터에 겸하야가물이 오래동안계속하며 정기미(定期米)와 정미(正米)가 모다 련일폭등하고잇서 시중쌀금도올르지안흘수업서서 저간에도 루차올랏섯는데 십오일에도 시중각공설시장의 쌀금이 매킬로에오리식올랏다 쌀금을별로보면 ▲정백미특등은 한키로이십륙전 일등미는이십오전 보통일등미는 이십사전오리로되여 한말에는 칠전오리가 올른셈이고 ▲한백미는 상품한가마니에 십륙원삼십전 한말에는 삼원삼십전이다

금년일월이래로보면 이번까지 다섯번째나 올랏는데 압흐로도 아직 시세는 놉흠으로 더 오를념려가잇다

天道는無心!
비업는마른장마 曇天만繼續

농기(農期)에들자말자시작한 가물이벌서이앙기(移秧期)가 칠신념도록 가물은 그대로 속하야 도시농촌할것업시 인심은매우 불안한중에잇다 경계용중심으로 어재새벽부터 호리거는 잔득흐리여 간간이가랑비를 뿌리나 본격적으로편족한비는 종처럼 내리지만코비 업는마른 장마를보며 일반의 갈길만내이고잇다 경성 측후소의 타진을 드러보면 천진부근에 우세한 저기압이 잇기는하나 종처럼 동편으로 이동을 하지안허 평북지방에는 다소 비가 오는 모양이나 그밧게 다른지방은 아즉도 흡족한비를 기두릴수 업는 형편으로 오늘도 경성지방은 흐린대로 간간이 가랑비가 잇슬뿐이라고하며 오늘아침까지 각지방의 우량은 다음과 갓다고한다

▲新義州七五미리 ▲中江鎭四五미리 ▲仁川一미리 ▲京城一미리 ▲平壤四미리

平北一部에適雨가잇슬뿐
其他地方은가랑비程度……

籌筆軒을移築
約二百年前建物

【開城】개성박물관(博物館)은오래된 관사를 사무실로 대용하야 불편을늣겨오든바 이번에그여페 약삼십간의 사무실을 따로히 건설키로되엿다 이에대하야 관장고유섭(高裕燮)씨는 새로운 건물보다 역사기픈 녯날의 관사를 이전해다 세우는것이 의미잇는일이라 주창하야 지금으로부터 약이백년전 개성류수(開城留水)김선행(金善行)이 창설한 주필헌(籌筆軒)을 옮겨다 짓게되엿다

이곳엔 이조이십일대 임금인 영조(英祖)께서 친필로 쓰신현판까지 걸려잇든곳인데 역사의변천을딸어 현판은 글조각이 깨여져 업서젓고 오죽 좀먹은건물만남어 한때는 헌병대청사(廳舍)로 한때는 도서관으로 사용되다가 오늘엔 도립의원 병실로까지 쓰든바 또다시 중서면사무소(中西面事務所)로 사용할려고 입찰까지되든것을 박물관장고씨는 이유서기픈건물을 그러케 내놋는 것은 앗갑다주장하야 전기와가티 박물관사무실로 옮겨오는 동시에 사천원의 경비를 들여화려한 고색의옛모양을 다시 건설해보려한다 그런데 헐려진 대들보에선 다음과가튼 상량문(上樑文)이 발견되엿다한다

乾隆 三十二年 丁亥四月 二十日 隨時上樑
監董折衝 梁淸漢 崔宗華
色吏 安重綱 李道亨
木手 李東昌 李秦三 李龍得
徐順福 崔是今同 金泰齊
石手 羅雄萬 金益官只
泥匠 安竟伊 梁老味

天氣予報

概況 七四九粍의 低氣壓은아직 天津의北쪽에잇서 움지기지안는다 七六二粍의 高氣壓은 그대로 日本南東海上에잇고 그先端은 朝鮮에 突出하고잇다 滿洲로부터 國境方面에걸처서는 昨日二〇粍乃至七五粍의降雨가잇고 오늘아츰도 아직끄치지 안코내리나 其外는 晴曇不定이다 日本內地도 西日本은 晴其外는 曇天이다

豫報 오늘밤 京城地方은흐리고어쩌면 小雨가잇다 來日도 갓고 京畿全道도갓다

昨日最高 二六度九
同 最低 一七度四
今朝最低 一九度七
今日正午 二五度二

運動競技

全朝鮮專門陸上에 齒專軍이優勝
安君新記錄作成

全朝鮮學生陸上競技聯盟主催의第三回全朝鮮大學、專門校陸上對校選手權大會第二日은 十四日午後一時부터 京城運動場에서 열린바 이날齒專 安榮楨君이 投鐵槍에서 作成한三八米八一의 朝鮮新記錄을筆頭로 大會新記錄 九、同타이記錄二라는 躍進的進境을보인後 結局 齒專은 總得點九九點七五로 優勝을 獲得하얏스며 『트랙』에는 五六點으로 高商軍이 『피ー드』에는 五〇點七五로 齒專이各各優勝한바當日戰績은다음과갓다

【八百米決勝】1八十川(城大)二分八秒七 2朴聖浩(齒專)二分一秒四 3柳邦燮(齒專) 4向野(高商) 5彭顯(城大) 6坂口(京醫專)

【二百米決勝】1李英敏(高商)二三秒三 2荒田(高農)二三秒八(以上大會新記錄) 3山田(高農) 4荒木(城大) 5田頭(齒專) 6朴永俊(齒專)

【高障礙決勝】1越田(高商)一六秒六 (大會新記錄) 2荒木(城大)一七秒四(參考) 3韓萬壽(大邱醫專) 4島崎(城大) 5金容潤(京醫專) 6橋本(齒專)

【四百米決勝】1山崎(高商)五四秒二 2張洪植(高商)五五秒五 3金鍾元 (齒專) 4山田(高農) 5池田

【五千米決勝】1 八十川(城大) 一七分 一六秒 2 李河潤(齒專) 一七分二三秒五〇 (以上大會新記錄) 3 王寶根 (齒專) 4宋鎭權(京醫專) 5前田(高農) 6津田(高商)

【中距離決勝】1張洪植(高商)六〇秒四(大會新記錄) 2藤本(城大)六一秒七 3田口(齒專) 4中島(高商) 5金容潤(京醫專)6金鍾元(齒專)

【千六百米競走決勝】1高商(三分四一秒 2齒專(三分四三秒五 3高農(三) 4城大(三) 5高工(三) 6京醫專(三)

【走高跳決勝】1越田(高商)一米七〇 2盧聖仁(齒專)島(城大)富田(城大)以上一米六五 5廣本 (齒專)黑原 (城大) 中出(高商) 廣津(大邱)以上一米六〇

【三段跳決勝】1越田(高商)一三米五二(大會新記錄) 2松口 (法專)一三米一八 3盧聖仁(齒專)一二米八五 4朴永俊(齒專)一二米七四 5黑原(城大) 6楊獻登(京醫專)一二米四九

【投鐵槍決勝】1安榮楨(齒專)三八米八一(朝鮮新記錄) 2 服部(高工)三七米七四 3名取(高農)三六米三七 4朴寶奎(普專)三五米三二 5越田(高商) 6金鍾元(齒專)二〇米四五

◇各校總得點表
▲1齒專九九、七五 ▲2城大八三、二五 ▲3高農八一、七五 ▲4高商三三、五〇 ▲5大邱一七、二五 ▲6高工一七、〇〇 ▲7普專一六、五〇 ▲8醫專一四、〇〇 ▲9法專一二、〇〇 ▲10藥專〇、〇〇

庭球中央豫選戰
洪李組優勝

京日主催의 第十三回 全朝鮮庭球選手權大會 中央豫選大會는十四日午前 十時부터 京城運動場『코ー트』에서 열린바 다음과가튼戰績으로 決勝에 드러가 府廳洪承杰、李鳳基組가 遞信의宮崎、孫觀星組를 四對一로 擊退하야 優勝하엿다 그리하야七月十二日에열리는 全朝鮮庭球 爭霸戰에中央代表로 出戰케되엿다

◇第二回戰
○殖銀(嚴寬龍 神田)4…1道議(朴源福 秋山)×
○府廳(洪承杰 李鳳基)4…1遞信(鈴木 元大奎)×
○京東(金振玉 李仁俊)4…3殖專(李熙基 沈誠鎔)×
○專總(白傳輔 李熙麟)4…3殖銀(加戶 沈熙毅)×
○殖銀(藤原 李鍾鎬)4…1府廳(張南星 申昌徹)×
○專貿(向井 朴寅世)4…3京東(朴奇元 成炳文)×
○商銀(金時浩 盧世新)4…1府廳(河東植 赤松)×
○遞信(宮崎 孫觀星)4…1商銀(小田 武田)×

◇準準決勝
○府廳(洪承杰 李鳳基)4…1殖銀(嚴寬龍 神田)×
○京東(金振玉 李仁俊)4…3專總(白傳輔 李熙麟)×
○殖銀(藤原 李鍾鎬)4…0專貿(向井 朴寅世)×
○遞信(宮崎 孫觀星)4…1商銀(小田 武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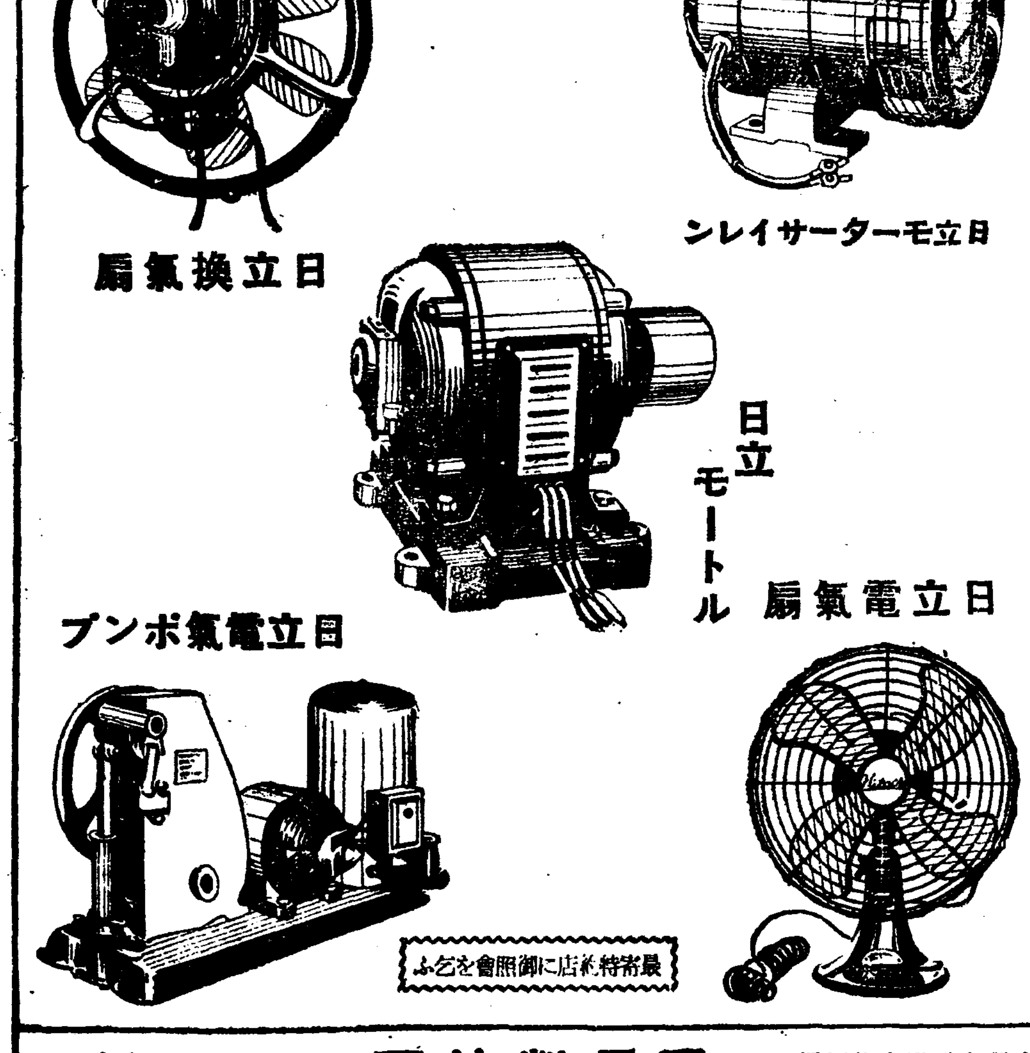
◇準決勝
○府廳(洪承杰 李鳳基)4…3京東(金振玉 李仁俊)×
○遞信(宮崎 孫觀星)4…1殖銀(藤原 李鍾鎬)×

◇決勝戰
○府廳(洪承杰 李鳳基)4…1遞信(宮崎 孫觀星)×

大宮4 全京城3

全京城對大宮戰은 十四日午後二時十三分부터 京城球場에서 石井(球)富田、大島(壘)三氏審判下에 大宮先攻으로 開始한바四對三으로京城惜敗하엿다◇投捕(京)李榮敏—小笠原(大)南—藤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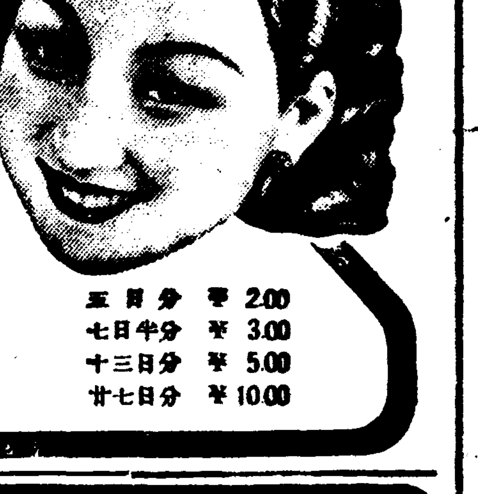
京城 (000010020) 3
大宮 (010003000) 4



日立製作所
大阪市西區土佐堀通一ノ一 福岡市博多片土居町四一 大連市紀伊町八五
東京・丸ノ內
京城府古市町四三中央ビル 名古屋市中區南大津町一ノ一〇 札幌市南二條西十三丁目三一九

副業
非常時에處하야 生活의安定을圖함에는
紙袋製造業推獎
都會와農山村을 不問하고本業又는副業에 가장適當한婦女子에도 가장簡單便利、製品取引은確實、永久之業。生活의安定을希望하는 분은必히相談하라
申込次第說明書進呈
大阪西區本田通 千代田商事本店 電話西七三九八番 振替大阪二四〇六番

諸金物 (同業者에限하야型錄送呈함)
木手器具、建築金物 理髮器具、家庭金物 卸問屋
大阪市南區安堂寺橋通一丁目 正宗刃物本舖 大野合名會社

우수한 치림약 리베ー루 リベール

本劑의特徵
一、臟粘膜으로부터吸收가極히速하고、服藥은尿는藍色으로變하야 『리베ー루』냄새를排出한다、그러케되면벌서快感을느끼게된다
一、尿道를侵入한無數한黴菌은服藥後勢力이衰하야 體外로排出된다、따라서膿、痛症도解消된다
一、藥効를確實히알려면『리베ー루』의 服藥前과內服後의尿를顯微鏡으로比較檢査하는것이迅速하며服藥後날을따라黴菌의減滅되는現象을볼수잇다
他藥에迷惑되지말고治淋藥으로信用이두터운特製『리베ー루』를服用하시라、全國各藥店에잇슴、萬一品切時엔本舖에直接注文하라、送料不要
本舖 大阪市南久太郎町 竹村製劑所 振替大阪三六〇番
五日分 ¥2.00
七日半分 ¥3.00
十三日分 ¥5.00
廿七日分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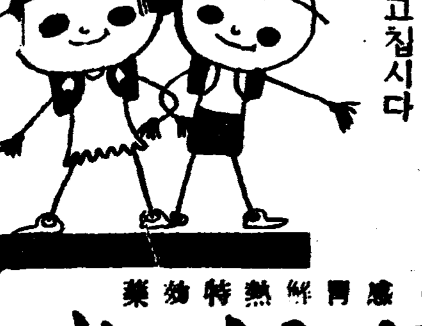
◎新學期開始七月一日(晝夜) (學則要二錢切手)
◎中等科第一部第二部第三部各中等學校入學又ハ編入學受驗準備
京校 中等豫備專修學院 補缺生徒募集
京城府黃金町六丁目三三番地 (電本五三三六〇番)

◇校舍大擴張◇ 官廳銀行商店就職紹介◇晝夜新學期開始七月一日◇學則要二錢切手
第四十七回 補缺生徒募集
實踐簿記專修學院 (晝夜)
京城府黃金町六丁目三三番地 (電本五三三六〇番)

당채색 (商報送呈)
京城府鍾路三丁目 德世洋行 電話光化門二八一八番 振替京城八〇九番

國產眞石玉眼鏡 (品質保證書添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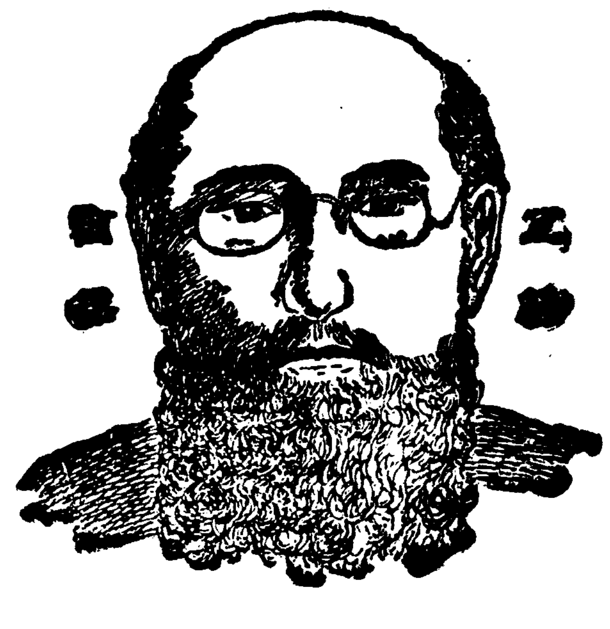
돌안경
眞石玉眼鏡을求하시라면 必히信用잇고歷史깁흔 剛明堂本店 磨玉部로
朝鮮慶北榮州邑內
天然眞石玉寶 剛明堂本店 磨玉部
振替釜山四二九六
(請求次第型錄進呈)


손에손을잡고 원기잇게놉시다!
感氣가들면實效散을服用코速히고칩시다
感冒解熱特效藥
實效散
本舖 京城府鍾路 天然堂藥房 振替京城二一七二
NO.141

女社員募集
一、資格 十七歲以上身體健康한女子
一、待遇 月五十圓以上
一、募集期日 昭和十一年六月十六日
志願者는自筆履歷書及寫眞持參來談할事
京城鍾路(韓靑빌딩三層)
和信連鎖店株式會社管理部

엇재서 大學目藥이 世界에第一인目藥일까?

그까닭을말슴하야드리지요



第一 大學目藥原料中에 專賣特許인「올비오래긴」이 配合되야잇슴니다。이것은 世界의어느目藥으로도 追隨치못할것입니다。

第二 그런結果大學目藥은 모든眼疾에神効잇는治病作用과 눈을깨끗이하고아름답게하는 美眼作用과 눈에有害한 紫外光線을防止하는紫外光線防止作用等 三作用을一時에나타내는것입니다。한가지藥으로 三作用을兼하야、眼科藥으로서 理想을實現한 目藥은、모든目藥中에서도、우리大學目藥이 잇슬뿐입니다。

第三 그리고、大學目藥은、압흐거나、쓰리지안코、氣分좃케有効한것이 자랑할만한 特長입니다。「氣分조코愉快하게眼疾을治療한다」는것이 他藥의 追隨不能하는 大學目藥의 特長인同時에、藥質은아모리오래두어도變質되거나 腐敗치안어서、어느때나安心하고 使用할수잇는것이、大學目藥의 世界的으로 信用을엇는 理由입니다。

第四 다시、大學目藥에는一瓶마다、大學洗眼藥이라는、눈을씻는藥이添付해잇습니다。眼疾을速治하랴면、눈을씻고 目藥을느는것이조흔것은、누구나 다아는바인대 目藥에洗眼藥까지 添付된 親切한目藥은大學目藥外에 는업습니다。그뿐아니라、大學洗眼藥은 世界一인산데ー뿌衛生包裝을하야 가장淸潔히包裝되야잇슴으로、누구나 大學目藥의 周到한데는 賞歎치안는이가업슴니다。

第五 大學目藥에는、十歲以下어린이를爲하야 特製한小兒用大學目藥이잇슴니다、學理와 經驗에依하야、어린이눈에맛도록製劑한 小兒用大學目藥이 世上父母된이들에게 絶大한信用을 밧는것도當然입니다。

第六 最後로、點眼容器와 人造鼈甲케ー스에對하야 한마듸말슴하겟슴니다 大學目藥의 容器는 新案特許의 自働點眼容器입니다 이容器는、그대로 自働式의點眼器로서 便利한것으로、上部의고무를손으로 누르면 一滴도 허실되지안음으로 第一經濟的이며 衛生的입니다。이點眼容器는、너머지거나、것구드러도目藥이 쏘다질 念慮가업슴으로、携帶하기에데 便利한다가 더一層携帶하기便利하도록 近代的 美裝을다하야、發明한것이、人造鼈甲케ー스입니다。人造鼈甲케ー스는、조곰도 틀이지안는、美術工藝의 粹을다한優美高尙하고 便利한케ー스로는勿論、다른케ー스로서도아직다시업는 훌륭한것이라고 評判좃슴니다 願컨대、여러분도每日아츰起寢하시거든 잇지마시고、大學目藥을點眼하십시요、그리고 外出하실때에도、반드시포ー케트에 넛코단이시다가、생각나시는대로 點眼하십시요。여러분눈 은어느때나 아름답고 永久하게 健康하실것입니다。

朝起後에 大學目藥을點眼하면其爽快한心神

눈은더욱 健康케되고●眼疾은 곳治療됨●大學目藥은 片時不離할나의寶貝입니다。

眼科專門大醫

醫學博士 河本重次郎氏
醫學博士 小玉 龍藏氏
醫學博士 吉田 義治氏
醫學博士 山中 崔之氏
醫學博士 豊田 正達氏
推奬

大學目藥은 效力第一로 世界에 所聞난 눈藥의 大王이요 그 効能의 優秀함은 有名한 眼科專門의 五大醫學博士가 一齊히 推奬한것만 보와도 分明한데다가 世上사람들이「第一 조흔 눈藥이다」라고 爭先愛用하야 大學目藥이 世界 目藥中에서 第一 信用이 잇고 第一 잘 팔리는것으로 보아 알수 잇습니다 이러케 훌륭한 目藥이 日本에서 製造 發賣되는것은 我國醫學界의 世界的 名譽라고 하겟슴니다

適應症

○血目 ○雪目 ○[illegible]안질 ○쑤시는눈
○疲勞眼 ○打目 ○爛目 ○[illegible]目
○다락기 ○상한눈 ○淚眼 ○흐린눈
○麥粒腫 ○삼눈 ○도라홈 ○光線眼炎
○結膜炎 ○진안질

人造鼈甲케ー스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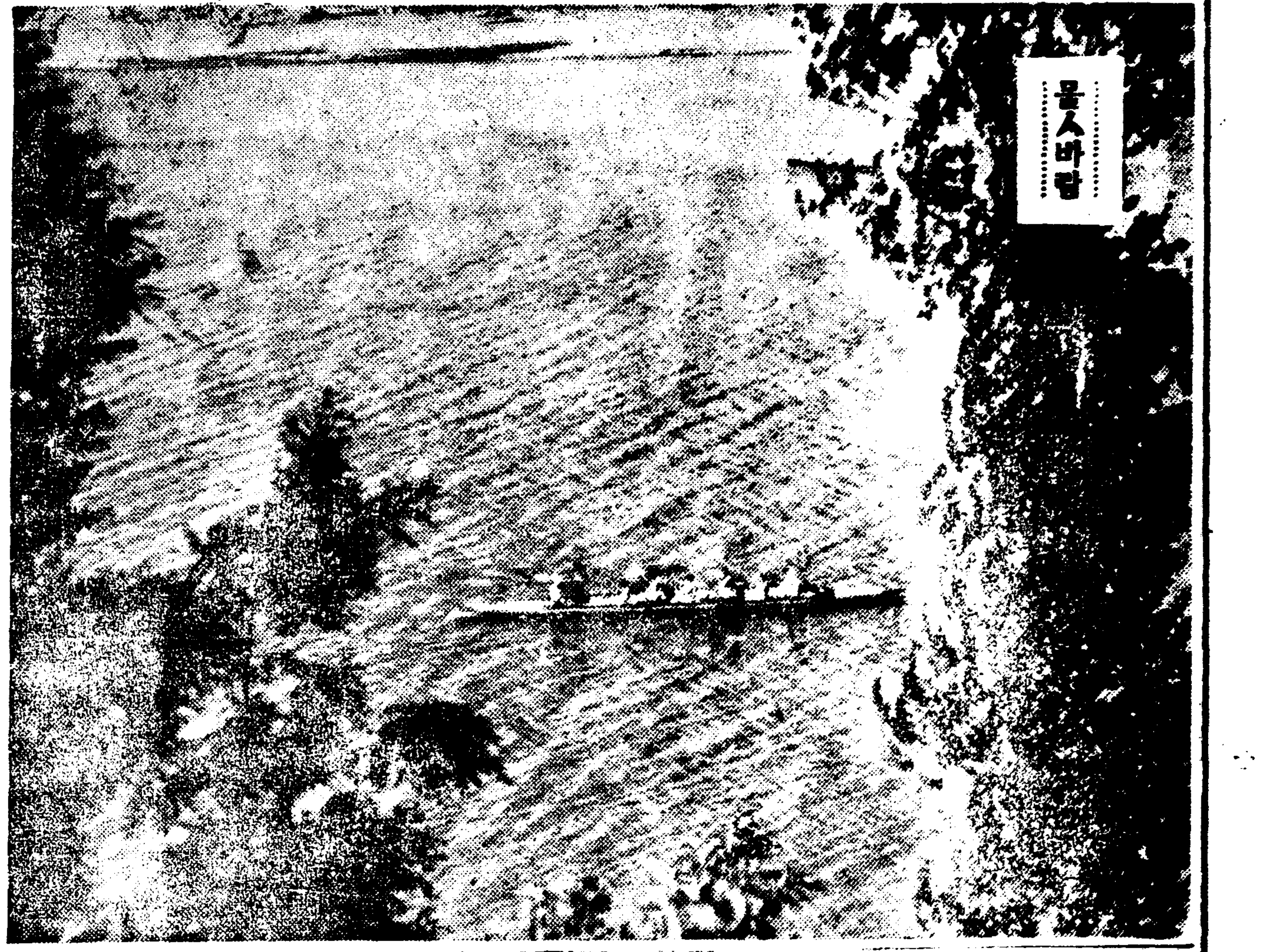
一瓶入	三十錢
二瓶入(케ー스는一個)	五十錢
補充用 特大瓶付(圓)	一圓

케ー스업서

試用瓶	十錢
小瓶	二十錢
大瓶	三十錢
德用	五十錢
(小兒用)	二十錢

全國各地藥房에서販賣함

大阪東區北濱一丁目
製造本舖 參天堂株式會社



띠만흔새매

童話 金相德

어느날! 생선장수가 급한거름으로 삽짝을빨리지나다가 물꼬기한마리를 빠트렷습니다。

이때맛참 공중으로 날어가든 새매한마리가 이것을보고 급히 쫏처나려와본즉 그것은 맛잇는생선이엿습니다。

「애 여거웬떡이냐?」하고 부리낫게 그생선을 쪼으려 달려들엇습니다 그때 절여되 나무우에서 까마귀한마리가 후루룩 날러오더니

「여보게 그것은 내것일세 내가 먼저본 것이야!」하고생선을 빼서가려하엿습니다。그래서 둘이는 네거니 내거니하고 싸홈이 버려젓는데 그때 어디서인지 독수리한마리가 또날려오더니、

「여보게 자네들중에 누구든지 이근처에 생선한마리 떠러진것 혹시못보앗나?」

하며 능청스럽게 말햇습니다。

먼저자흔 새매와 까마귀는원 생이지 어이가업서서 엇절줄을 모르다가 새매가 무슨 생각을 하엿든지 독수리와까마귀에게 이러케 말햇습니다。

「자아여러분 우리가 이생선 나로해서 이러케 네거니 내거니하고 싸홈것이 아니라이 생선을 저─긔저빗가운데다파무더두고 내일 아침에 제일 일즉이와서 차지하는이가 가저가기로하는게 어떤가?」이소리를듯고잇든 까마귀는 선뜻、

「그러시다……」하고 대답하엿습니다。

까마귀는 새매보다 먼저잡을게 어새입니다。그러닛가 독수리도、

「그것참 제일조타!」하고 업룽쫑락햇습니다。독수리는 까마귀보다 먼저잡을게는 생입니다。

그래서 셋이는 이러케 단단히 약속을한후에 생선을언덕밋밧가운데 파무덧습니다。

그러나 하도 날은바린고로 곰방파무더노코도 어느곳에다 어떼케 파무덧는지를 모르겟습니다。

그때 까마귀는 얼른 하늘을 처다본즉 머리우에 흰구름이 하나 동동떠잇습니다。

『올치 생선은 바로 저흰구름장미테다 파무더 노앗스닛가 저흰구름만 생각해두면 틀님업시내것이것다』

생각하고 안심하엿습니다。

그때 독수리역시 하늘을처다 보앗습니다。마츰그때 제머리위에는 해님이 눈이부시게번쩍번쩍 빗나고잇섯습니다。

『올치올치되다 생선은바로 저 번쩍번쩍하는해님미테다 파무더노앗스니까 저기저해님만 생각해노면 틀님업시내것이다』

생각하고 안심하엿습니다。

새매는 까마귀와독수리가 서잇는동안 언덕밋바위아래로 석자쯤아프로내다가 생선을 파무든것을생각해노앗습니다。

×

잇흔날 아츰이되엿습니다。

독수리는 해가떠잇는곳을 차저갓습니다。

까마귀는 흰구름이 떠잇는곳으로 차저갓습니다。

새매는 언덕밋 바위아래로 차저갓습니다 그러니이생선은 누가차저갓슬까요?꼿

六、五서강에서

쌀이야 굿건말건 밥맛은 솜씨나름

가마솟에말쌀을끄려도맛잇게

꾀나무안반을탓말일

서너식구 먹을만큼 조그만 옹솟이나 냄비에다가 쌀 몃홉을 집어너코 끄린다면 고슬고슬 맛잇게 밥을짓기도 그다지 난사가 아니오나 식구가 들썩 만허서 커단 가마솟에 말쌀을살머 내자면 아모래도 밥뜸이 되기 어렵습니다。또 그뿐이아니라 현미나 안남미를 사다가 자시는 댁에서는 만흔 밥이야 물론이요 비록 적은밥일찌라도 밥이 제대로되지를 잘안하야 밥을 지으면서도 걱정、밥상을놓고 들어오면서도 걱정 안으데의 약한마음이 괴롭기 쉽습니다。그러나 어련일을 잘해야만 그것이 솜씨가 아니오니까? 어떠한 쌀이라도 그 손에 들어가거든 맛잇는밥이 되야나와야 하지를 안습니까?

본래 밥은 첫재 물대중이 조요 둘재 물대중인데 물대중보담도 불대중이 더욱중요합니다。더구나 만흔밥을 짓는데 일사록 더한층 그럿습니다。위선 쌀을 일어서 이남밥에나 또는 바아지에 담아노하 두고서 물을 끄리지안습니까? 찬물에 쌀을 덤벙넛는것보담은 물을 끄려 가지고서쌀을 넛는것이 조흡니다。그다음 쌀을 너코서는 주걱을 속을뒤집어서 중간을 파고가으로 쌀을뛰뒤에 두겅을 덥고 다시 끄리지를 안습니까 쌀을 주루루 너코 그래로끄리는 것보담은 가으로 물고 중간을 비어 놋는것이 조흡니다。처음은 팔게끄리다가밥물이 끓어 오를때쯤 불을좀 죽이고 물괴가 짤때쯤 다시 한번 세게 하야다가는 조금뒤 불을、물리어 푹 뜸을 드립니다 물이、밥물이 끓어오라기 까지 삼십분 불을 약하게 해서 십오분 불을 다시 세게해서 오륙분 뜸을 드리기 십여분 대개로 한시간 내외가 걸립니다。물론 밥물에 딸아서 또 화력에 딸아서 시간이 다소 상위납니다。일개해서 이시간으로 말할 것은 못 됩니다。하여튼 밥맛은 뜸을 잘 드리기에 잇습니다。넘어 오래 드려도 못쓰지만은 웬만큼은 두어 둘싹록 조흡니다。

×

현미는 백미와가티 일것이 아니라 잠간 갈아서 물에 씻어 가지고 하로ㅅ밤 하롯낫 동안 물에 담거 두엇다가밥을 짓습니다。그래도 밥물은 백미보담 십분의 일쯤 만허야만 할 것입니다。불을 쓰는 방법은 만흔 밥을 지을때나 꼭 갓습니다。그와동시에 뜸도 상당히 드려 두어야 합니다。

×

안남미역시 물에 담것다가밥을 짓는데 녀름에는 십오륙시간 겨울에는 만하로이상을 필요로합니다 안남미의 냄새를 빼기 위하야는 귀찬호시더

海外뉴스 녀자대학생의 십게명

「보스톤」대학이라면 녀학생을 오천명이나 수용하고잇는 미국에서 손꼽는 대학인데 최근에 이대학의 녀자부장「루─시·프랭클린」녀사는 「녀자대학생십게명」이란것을 맨드러 학생들에게 나누어주엇다합니다 그내용을봅하면 다음과가튼데

一、어데를 가든지 모를사람과 동행하지말일

二、댄스하는자리를 떠나서 딴 남자와 자동차를 타지말일

三、사교상 관습을 직히지안는 따위의 청년과는 한자리에 안지도말일

四、여러사람이 모인자리에서 술먹지말일

五、서로이야기할때 애칭(愛稱)을쓰지말일

六、속어(俗言)을 부주의해서쓰지말일

七、이야기하다가 상대자를 팔쿡지로 쿡쿡지르지말일

八、남자의하숙을 절대로 방문하지말일

九、진실치못한 연애에빠지지말일

十、거리에서 롯증에 분바르지 말일

이상의 열가지 계명인데 학생들 그러케하는듯이 이것을바더드렷습니다 제사조、비밀히술을먹어도 조타는데대해서『부장선생님은 비밀히술먹는것이 더 무섭다는것을 모르시는 모양이지!』하게 롬을 외로피고잇다합니다。

美容室閑話 향수의 매력

● 吳淑根

남국(南國)에 야자수(椰子樹)그늘이 깁고 빙양(氷洋)에 잇기가 푸르른처녀를입니다。참말로 녀름은 록(綠)의녀름이요 또 청(靑)의녀름입니다 푸른녀름은 새파란 산뜻한 향긔를뿜닙피 가지마다 가득가득실어다가 부어주는 방향(芳香)의 왕국(王國)그것입니다。이아름다운 향긔의나라를 장미(薔薇)꼿가티 보드라운눈초리로 이윽히 내다보고잇은 도시(都市)의처녀들 과연그들은 미(美)의화신(化身)인서울의여왕(女王)이아닐수업습니다

×

도시의미쓰들미세쓰들──그들은 누구보다도 먼저 또만히 향긔에싸히고 젓고 도취(陶醉)하야오는행복자들입니다 그러고 그네들이앗기고、사랑하고 귀히녀기는 향수(香水)는 역시여왕과 인연이만흔것을일때에 더욱반가워집니다。

옛날에 우리의여왕──선덕(善德)여왕은 꼿을보기도전에 모란(牡丹)의향긔업슴을아섯슴니다。또서양에서 오늘날우리가쓰는향수의 발명을보게되기는 홍아리(匈牙利)의「엘리사베쓰」여왕의손에서 랍니다(一三七〇年)

×

우리녀자는 여유만잇스면 그저향수나뿌리고 모양이나내고 돌아다니는물건으로 아는남자가잇다면 그를위하야 계몽려행(啓蒙旅行)을 식혀야할일입니다。바로일전에 불난서「레온·블룸」내각에「큐리」부인이 보건상(保健相)으로입각을하얏습니다。그이는「라듐」을 발명한「큐리」부인의 따님으로 역시 리학자로서 연구실에서 뛰여나와 일국의 대신이 되엿습니다。

대신이 되엿다하야서 말이아니라、도모지 녀자가 사회에 바치는 과학방면(科學方面)의 공헌(貢獻)이 얼마나 만흔것을 알지못한다면 그는 근안(近眼)중에도 근안이라고하겟습니다。생각해보십시요 쌀이나 좁쌀을 씹어당화(糖化)를 식혀서 암죽을 쑤어가지고자녀를 길으든그것부터가 과학이요 또몃세긔(世紀)를 나려오면서 인류생존의 첫재수단인음식을 만드는것이 여자의 손으로 되지아니합니까。인류의영양과학(營養科學)──이것은어느의미(意味)로서는 과학전체의 존재(存在)라고볼수도 잇습니다。

『큐리부인가튼이를 연구실(硏究室)의 과학자라고한다면 우리조선녀자는 개개의 부엌의과학자요 빨래터의 과학자인줄을 자존(自尊)하지아니하면안됩니다

수년전에 조선박물협회(博物協會)주최 전람회에서 리화(梨花)배화(培花)두학교의생씨들손에 채집(採集)된 곤충표본(昆虫標本)들을보고 저는 눈물로써 감격하얏습니다 미구에 그네들손에 조선의자연계(自然界)가길리우고 자라고 커나서 새의의(意義)를 떠게 될것을 밋지아니할사람이 누구여겟습니까

×

실로조선의 녀성은 민족의생존(生存)·번영(繁榮)·건강(健康)의임무(任務)를 가진영양운동(榮養運動)과 또한편으로는 이따의녀자들을 미화(美化)하고、순화(醇化)하고、정화(淨化)할 화장운동(化粧運動)의 두짐이 실려잇습니다 이두가지 큰운동과함께 만흔 발명과 창조를 긔대하지 아니할수업습니다。

×

저는여긔서 화장방면으로보아 하절(夏節)에 만히요구되는향수에 대하야 보고들은대로잡간 긔록하겟습니다。

방향의『멜로듸』

아름다운향긔가 우리에게주는매력(魅力)은 마치월야(月夜)의 『쎄레나데』그것처럼、우리의심혼(心魂)을황홀(恍惚)한황홀경(恍惚境)으로 끌어드리랴합니다。향긔를맛는것을못는다(聞香)고하는말이얼마나묘(妙)한표현이겟습니까。

별일도다잇다 색기밴황소

지난팔일 함경북도라진(羅津)도수장에서는 네살가량되는 수소(牡牛)를 도살하엿는데 창자에 이상한액체(液體)가잇서 소잡는 사람들이 이것은병든 납뻐것이라고 곳버리여버렷다하며 또방광(膀胱)에가이 대장(大腸)에가서 늘어붙은이상한 주머니형상으로된 주위(周圍)가 약십삼인취가량되는 창자가잇서 이상이여이여 그곳을갈르고보니 그안에는 계란(鷄卵)의 흰자위가튼액체(液體)가 갓득잇는가운대 완연한 소(牛)의색기가잇서 두족(前足)과 꼬리와 태ㅅ줄까지잇서 형체그대로 완연한·소색기가 되야잇는대 크기가 약삼인치가량 되엇다 합니다。이륙알콜」에 당거 잘보관해 두엇는데 라진에서는 수소가 색기를밴것은처음으로 진긔하고 희한한일이라하야 이야기거리가 되여잇습니다。─사진은병에든소색기(本報羅津支局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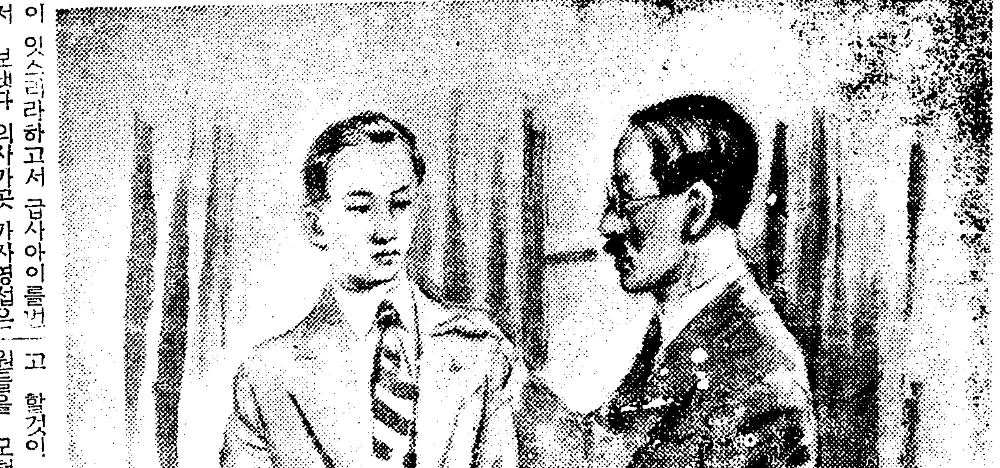
가정의학

골절(骨折)?

問 당년이십이세 남자인바 한사개월전에 타박한일이 잇슨후로 그 문님에 좌편 무릅아래뼈를 불은이 쑤시기도하며 아푸고부엇습니다 거름을거려도 압흠니다 치료법을 하교하여 주십을 바랍니다 ([illegible] 一讀者)

答 보통 타박상이면 벌서나섯슬터인데 사개월동안이나 낫지아니한것을보면 끔이잇지아니한가 의심됩니다。전문가에게진찰을 바드시고 필요에 의하야는「큔드렌」검사도하야 끔직이 유무를 판단하고 사실 끔찍이 잇다면은 적당한 치료를 바더야한니다

(城大醫院 小川外科 醫學博士 金晟鎭)



아카시아 (十)

連載小說 安碩柱 作 金熊超 畵

영섭은 전무가보낸 편지를바들때 가슴이 선득하엿다 불행만으로본사람은 이세상모든일이 불행만 나올것가티 생각하드키 전무의편지가 영섭에게 어떠한흉보(凶報)가 아닌가도 생각하엿다

아모리 생각해도 한회사에서도 일년에한번이나 몃달에한번쯤 마주안저 이야기하든 전무가 무슨큰일이 잇기전에는──그것은 요즈음 회사에서 인원정리문제가 잇서서 공긔가 뭄순하엿는데 거기에 자긔가 부닥치지나 안헛나하는추측이압섯다

그는 그편지를 뜨더보앗다

그편지는 의론할일이 잇스니 지금곳 드려오라는 내용이다

영섭은 필시무슨 조치안흔일이 잇스리라하고서 급사아이를먼저 보냈다 의사가곳 가자영섭은 아츰밥도먹지안코 회사로 드러갓다

중역실로 드러가니 전무가혼자안젓다가 얼골에 화긔를 띠며 이러서서 영섭을 마지한다

전무는 영섭이를 푹신푹신한 의자에안치고 자긔도 마조안젓다 영섭은 전무의 긔색이 상상박그로 조흠으로 혹 어제저녁 과장의 말맛다냐 승진을 식히라는 모양인가 하엿스나 어느모로생각하든지 자긔가 지금 과장의 자리에안질 그만한배경과 도 자긔로서 자신도업슴으로 과장의말을 신빙할수도 업섯스나 어찌햇든 전무의 입에서곳 무슨말이고 나올터이니 드러보자고서 전무를 바라보앗다

『이러케일즉 드러오시라한것은 한가지 김영섭씨에게 깁븐소식을 알리랴한것인데 이따가라도 조치만 발표하기전에 먼저당자되는이에게 알려드리는것이 조흘듯해서 이러케실례를합니다 다른것이아니라 김형이 설계하신 도본(圖本)이 다른전문가들것보담도 낫고 또 새로운 점이 잇서서 중역회에서 그것을 쓰기로 결정되엿는데 물론 거기에대한 보수도 잇서야하겟고해서 전문가들에게 주는것보담은 김형은 본사에서일을보시는이고 해서 약소하나마 보수를 드리기로햇습니다 참깁붑니다 본사의직원의손으로된 설계로 본사사옥을 신축하게되엿스니 이것은 누구에게든지 자랑할일입니다 그런데 언제 그러케 건축에대해서 연구를하섯나요 사람은누구나호불것이아니라는것을 이제야아럿습니다 사장께서도 이따가 맛나뵈옵고 치하를하시겟지만 엇잿든 이회사에서 사무를보시면서라도 그방면에 연구를게속하시요 사에서도 압흐로 거기에 조력을핫기지안켓고 신축락성하는날 우리회사에서도 건축을마터보는 긔관을세우랴고 합니다 그때에는 김형을중심으로하고일울만흘터이니까 그것은 아족발표할것은 못되나 그것이안되드래도 신축락성하는날 김형의지위도 생각할것입니다 그보수에 대하여서는……그러치요 보수라고 할것이 아니라 본사상의사원들을 모혀노코서 어느형식미레서 사장이 드릴것 이니까요 그럼 아츰을 안자셧슬 터인데 우리집으로가서 찬은 업스나마 가티곳잡곳고 드려오십시다』

영섭은 이런일이 의외여서 무어라고 대답할말이 안나왓다 회사에서 어느때인가 사옥을신축하고자 신문광고를내여 건축설계도를 모집하는때 영섭이가 틀들이 연구하엿든 건축에대한 지식으로 설계를해야 드려미러본것이 당선이되엿다는것은 자긔로서도 희한한일이엿다

『그 번번치 안흔것을그려두록』

영섭이가 말을 시작하라나 전무든손짓을 해가며 가로막는다

『천만에 겸사의말슴도 따로잇지요 이제 건축만시작하면 김형이 총감독을하서야 할것이니까 지금까지 보시든일은 다른사람에게 보힐작정입니다 어쨋든 잘되엿습니다 김형도 사실 너무 불우하섯지、내가말할것은 못되여도 김형이 일을 남보담몃배를 하고게신것도 다─알고잇섯스나 입이여럿이고 눈이하─도만흐니까 어느긔회를 보자든것인데……사실 우리회사에서김형의 존재가 혜성과가티 되엿소이다 자─시간이얼마안남엇스니 집에좀다녀오십시다』

이래서 영섭은 전무의집을따라갓다

御當籤 三十萬名 ヘチマコロン・ヘチマクリーム大懸賞 抽籤을終了함 六月二日嚴正

當籤發表

正解 ヘチマコロン

113CDeF

賞品

特等 白金側高級腕時計 新柄紋羽織 友禪縮緬丸帶 優美入小紋錦紗 廣珠入十八金指輪 新柄フランス人形 本場八丈明石 特選本銘仙座蒲團 蘭甲製上バイミシン 雕刻パックル・カフス釦 シガーレットケース三揃 象牙機材鏡台

壹等 刺繡入羽織紐 流行型朱塗姫鏡台 朱塗貝入櫻ちらし古代型合鏡 特選タオル夏掛布團 特選若向本銘仙 御家庭用電氣アイロン ポプリンワイシャツ クロームメッキ立型置時計 絹張日傘 蘭甲製カフスボタン

特等(壹百名樣 敬稱略)

(東京)金子俊子、小林碧子、高橋君代、横川きの江、倉田サチカ、平佐美愛子、工藤貴代、中川徳藏、内田よし枝、岩田信子、河野三千枝 [illegible]

壹等(五〇〇名樣 敬稱略)

(東京)齋藤カイ子、小竹知子、佐藤美代子、竹内園子、安田愛子 [illegible]

同二等以下は賞品の送附を以て發表に代へます。賞品は目下發送準備中ですが、何分大多數の事とて、全部の發送を終るには、同一ケ月を要する見込です(特等より三等迄は東京銀座「松坂屋」より御送附致します)

本邦全土及滿洲國更히遠外支那其他海外에이르기까지 愛用者諸氏의 壓倒的多數의應募하심을感謝하오

本舖 東京 天野源七商店

六月創作評 (八)

作品의浪漫的要素와 主觀的感情의誇張

朴英熙

『키쓰를拒絕하는女子』 李無影作 (高麗時報六月號)

一人稱 獨白小說이다. 主人公의 입을 빌어서 作家의 構想을 表現한것이다. 히로인이 키쓰를 拒絕하는 理由, 몸을 許諾할지언정 키쓰는 絕對不許라는 理由가 이小說의 이야기다. 지내가는 말로 들어보면 『빼레라아가 부거부거 끓는 입술을 쭉쭉빨고 안젓는게 외관으로 그러케 신통할게 뭐람? 그러찬어요? 셋잰 상스럽죠. 이건아만종 모양으로 그추한 입술을 웨 빠는거야요? 흔는것이, 그가 키쓰를 拒絕하는 理由지만 事實인즉, 그가 키쓰를

拒絕 하는 理由는 女子로서의 貞操를 직힘이엿다고 한다. 世上을 떠난 愛人이 最後로 남겨준 貴여운 情熱의『키쓰』를 붉은 입술속에 永遠히 직히며, 神秘스러운 사랑의 열쇠를, 이少女의 紅唇속에 감추어 두기위하야, 몸은 다른 男子에게 許諾할지언정, 아츰의 海棠花가튼 紅唇은 줄수 업다는 것이다. 現代女性의 特異한 貞操觀이라고 하겟다. 그보다도 이少女의 紅唇에서 어느날밤에 自己도모르게 不滅의 海棠花가 滿發하여서 그香氣를맛는 사람마다가 合에 不治의 病이 들엇다고만일 假想한다면 이 얼마나 浪漫的 精華이엿스랴! 그러나少女의 紅唇은 『아론』의 집행이나 『다몬이세르』의 短杖은 아니엿다.

일죽이『히로인』의 아버지는다섯사람의 貧寒한 靑年에게공부를식히여 주엇다. 그들을 ABCDE라고부른다면, 이 다섯靑年은 다 各各 남과가티 學業을 맛치고, 또한 各各 職業에從事하게 되엿섯다 그러나 ABCD의 四靑年은 順次로 이少女에게 結婚을 申請하엿다. 그러나 그는 다拒絕을 하고 말앗다. 그리고보니, 반드시 E라는 靑年이 또

結 婚을 申請할듯한데 모消息이 업섯다. 그러타고 이少女가 그를 사랑하는것은 아니나, 順次로 結婚申請을 하는것을 一種의 好奇心과 女性的 虛榮에서 기다리엿든것이엿스나, 아모 消息이 업고, 그대신 신문學藝欄에 그의 詩가 늘 發表되엿다, 少女는 그詩를 반가히 읽엇다. 이러한야릇한 感情의 成長은 어느틈엔가 그에對한 關心이 커젓다. 그E라는 靑年은 연극운동 事件으로 發局되엿다가 病으로保釋入院하게되매, 이少女는 每日問病하엿다가, 어느날 E靑年은 少女의 목을 안고 키쓰를 햇다—永遠한 키쓰를 하고 꼬는죽어버렷다. 『필원씨 나는 나의 모든 부탁을 당신의 입술에다 햇습니다. 사랑, 원한, 히망……』하고 죽어버렷스니 이 愛人의 말슴을 직히기위해서, 이少女는 그의 紅唇을 永遠히 開放하려고 하니하엿다. 이 作品에 잇서서 필원이라는 少女의 好奇心과 虛榮과, 그곳에서 생기는 曖昧한 戀情의 發展過程은 매우 자미잇고 熱烈하게 表現되엿다. 心理的描寫는 대단이 자미잇다. 그러나 獨白小說인까닭인지 모르겟스나 좀 마음에 不滿한點이 잇는듯 십다. E라는 靑年에 關해서는 그性格이 잘드러나지안는듯 십고

病 院寢床에서 거짓熱情的으로『키쓰』를 할때만이 아니라 彼此에 戀愛가 그다지 깁지도 안흔듯 한데, E靑年이 그처럼 永遠한 부탁을하엿스며 또 少女亦是 紅唇을 永遠히秘藏하고 말게되것은 少女가 瞬間的일지라도 義理를 직히려이든가, 흑은 E가實行한 운동에 興味를 가지고 同志의 遺言을 직히려이엿든가, 만일 後者라면 握手만하고라도 遺言을 할수잇는것이데, 少女의 紅唇에다가 기피 기피 파뭇고 갈必要 조차 잇을것이 아니든가? 高調된 熱情의 紅唇속에 愛情의『네오자인』이 고요이 흐를때, 少女의 紅唇속에 秘藏한 精靈의 悲歡가 울려나오니, 『키쓰 拒絕』을 宣言한듯십다.

浪漫的要素가 多分이 들어잇는 作品이다. 자미잇게 읽엇다. 浪漫的小說에 主觀的感情의 誇張은 따러다니는것이나, 是非할것이 못되겟지만, 아모리 생각해도 어딘가 마음이 空中에 올거러가는듯십다.

孫日峰個人展 時日場所變更

洋畫家孫日峰氏 個人展은 今十二日부터 三日間來青閣에서 열기로되엿스나 事情에依하야時日과場所를 다음과가티 變更하엿다한다

時日 來十九日부터三日間

場所 本町大澤商會二層

懊惱의詩人 하이네研究 (二)

徐丙珏

少年時代

하이네는 一七九九年에誕生하얏다고自稱하얏스나 二年前인一七九七年十二月十七日生이 確實한事實이라고 一般이認定한다. 出生時에는 하ㅣ리ㅣ(Harry)라고命名하얏스나 改宗하고

洗禮 바들때에 하인리히(Heinrich)라고 改名하얏다. 出生地 뒤쎌돌푸市는 라인河畔에 잇는 當時의小都會로서 一七九五年부터一八〇一年까지와 一八〇六年부터 一八一三年까지는 佛蘭西軍의 支配를 바덧다. 하이네의 父親삼손(Samson)은 故鄕한노ㅣ뷔에서 뒤쎌돌푸로 移住하야와서 하이네의 母親뻬티·봔·겔데룬(Betty van Geldern)과 結婚한後 그의持參金으로 織物商을 經營하든 溫厚한사람이엇다. 四男妹中의 長子 하ㅣ리ㅣ의敎育은 理智的性格을 가진母親뻬티가 擔當하얏다. 아들의 將來를爲하야 浪漫的事象을 避하야 一定한方向으로 指導하랴햇스나 그와는反對로 少年期에잇서서 內容이 空想的인 또키호ㅣ테·껄리버ㅣ의旅行記等을 耽讀하얏다. 뒤쎌돌푸市가 佛蘭西軍의 支配를밧든 八年間(一八〇六—一八一三)은 하이네가 九歲로부터 十六歲까지로서 感化를 밧기쉬운時期엿다. 當時獨逸서는 割據한 諸王公이 平民을虐待하든中世紀의遺物인 封建的政治를恣行하든 時代이어서 나포레옹이支配를하게되자

住民 들은 그의 民主政治를 歡迎하고雀躍하얏다. 나포레옹法典施行後로 平民의地位는向上되고 貴族의特權은바脫하고 信仰의自由를公認하고 基督敎徒와同一待遇를밧게되든猶太人은 自由主義의英雄을 欽仰하고禮讚하얏다 그러나他地方의猶太人은그當時에 非人道的特殊待遇를바더 法律도 업는 껫토ㅣ(Ghetto)라는 猶太人의居住地域에 限定되여 土地所有까지 禁止當하야 貴只金錢業務이 그들의唯一한職業이되엇다

猶太人이平等待遇를밧게된後로 하이네의母親은 하이네를官吏로 出世시키려고 中學校에入學시켯다. 그러나 一八一五年에 나포레옹이失脚하고 프로시아政府가 政權을回復하자 猶太人은 또다시二等民의待遇를밧게되엇고 後年에 하이네의나포레옹崇拜도이때에뿌리박헛다. 나포레옹의 失脚으로 하이네를 官吏로 出世케하려든 母親의計畫은 崩壞되어바리고 商人되기를 勸告하야 一八一五年에 푸랑크푸르트市로 보내어 銀行家의 見習이되게하얏스나

失敗 하고 香料商의 店員도 되엇스나 亦是 商才가업는 하이네에게는 無理이엇다. 翌年에 함부르크市(Hamburg)에 잇는 百萬長者의 大實業家인 叔父 자로몬·하이네(Salomon. H.)에게로 가서 그의 經營하는 銀行에서 事務를 보앗다. 그의 低級한 敎養은 하이네의 詩를 理解못하얏스나 絕大한 好意를 가지고 生前은 勿論 死後까지 經濟的援助를 앗기지안흔 하이네의 恩人이엇다. 叔父의 집에 滯在하는 동안에 從妹 아마리ㅣ(Amalie)를 사랑하얏다. 早熟한 하이네는 十六七歲頃에 死刑執行人의 孤兒 요제퐈(Josepha)를 사랑하얏스나 그것은 戀愛의 感情意識이엇다.

하이네의 最初의 戀愛는 情炎까지에는 아즉도 距離가잇는 單純히 愛에 對한 甘美한 憧憬이엇스나 從妹 아마리ㅣ에 對한 戀愛는 熱烈하얏다. 그러나 아마리ㅣ에 對한 戀愛는 反響이업는 悲慘한 짝사랑으로 始終하얏다.

사랑으로해서
또 嫌惡로해서
그는 나를 괴롭게하엿다
마음것 憤怒를 물질넛다
사랑으로해서

또 嫌惡로해서 毒藥을너코 땅에다 毒藥을부엇다 그러나 하엿시 괴롭게하고 憔悴를불질는고숩프게한그女子는 나를 미워하지도안코 사랑하지도 안햇다 (Lyrisches Intermezzo 중)

百萬長者의令孃으로 珠玉가티 生長하야 歡樂과 華美에저즌女子가 空想이가득찬 貧寒한從兄의 氣分을 理解하고 自己에게 밧치는詩를 理解치못하고 도리여 하이네를 嘲笑와 憐憫으로對한 것도 無理가 아닌것이다. 하이네는 첫失戀의쓰린傷處를 바더 悲觀하야마지안햇다. 一八一八年에 叔父의補助로 하ㅣ리ㅣ, 하이네商會를 設立하고 織物商을經營하얏스나 商才도업거니와 性情과背馳되는 商業으로 年에도 失敗하야 閉店하얏다.

漢詩

綠陰 押—鶯

桐岡考選

佳作一 永同郡 鄭洛薰

繁枝密葉自縱橫
長夏郊居景色淸
白日澄波平地泛
碧雲團盖半天傾
行人拂柳來停馬
詞客携柑往聽鶯
願此栟檬均大陸
使無炎熱樂蒼生

漢詩募集

題…薔薇
押…香
限七月十日
薄謝進呈

薰—風—의—微—笑

古書解題 (續)

「農家集成」 (上)

方鍾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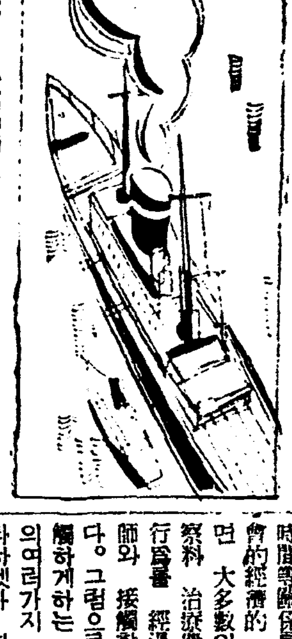
이책의 일홈이 集成이란名稱을 가지게된것은 그內容이 한가지로된것이 아니고 勸農敎文 農事直說 勸農文 衿陽雜錄 四時纂要의 다섯가지部分을 한데모아 集成한關係로 이런名稱을 엇게된것이고 그리고 그著作된年代는 孝宗朝임을 알수잇스니 이제 그編者인 公州牧使 申洬의 跋文이 그러한것이 아니기로 全文을 擧하야 이책의由來를밝히고저한다

農家集成跋

昔我 世宗莊憲大王以五方風土不同樹藝各有其宜不可盡同古書乃命諸道觀察使逮訪老農已驗之術以聞 命撫制鄭招就加詮次書成名曰 農事直說文下動農之于中外傳之至今可見 大聖人重農之睦念民事之所重留心稼穡之艱難其明農務本之意至矣於居鄕試之有驗旨農家之龜鑑也第恨印本無傳知者蓋寡玆乃錄以俗方庶其一行以刷本文思欲廣播宣布於世人得而行之也宋朝文時烈令公以朱文公勸農文誘之又得衿陽雜錄四時纂要以附末總而名之曰農家集成其耕種之早暮風霜之節候穀品燥濕之宜蠶桑樹藝之方各究其妙而靡所闕遺使南畝之民率循是法而益勸其業則我 先王經世養民之志朱夫子開物成務之意可以得行於千百載之下而是書之有補於治化豈其微哉

乙未夏通政大夫行公州牧使臣申洬拜手稽首謹跋。

이책이 至今 그리흔한책이아닌만큼 그原本들에 依하야 充分한 考査를 試하기는 좀困難하다 그러나 京城大學圖書館所藏印本이 잇스니 글字가 아지못하리만큼 不分明하게되部分도적지안코나 이것을 내가 가지고잇는 寫本과 比較하야 補充하면 그板만의全部는 歷歷히엿볼수가 잇게되엇다 上記印本은 三冊으로 난이워 매엇스니 그 첫책 即 天卷은 勸農敎文이 처음으로 四張부터잇고 다음으로 農事直說이 十四枚로 되어잇고 끄트로 晦菴 朱先生의 勸農文이 八枚가, 合하야 全部 二十六張으로 한책이되엇다 또 둘재책 即地卷은 衿陽雜錄吾傳의序가 二枚와 農家一과 農談二가 合하야 二十二枚이므로 모두 二十四張으로 한책이 되엇스며 셋재책 即人卷은 四時纂要抄가 二十二枚와 申洬의 跋文一枚로 合하야 한책이 되엇다 이것이 京城大學圖書館所藏本에서 차저본이책全部의 順序이다 根本 農事直說에 關하야는 世宗實錄己酉에도 國朝寶鑑卷六에도 文獻備考卷一百四十五第十五張에도 다 가튼記事가 잇스니 即 上記한 申洬의 跋文初頭에 씨워잇는것과 가튼事實을 들어 말하엿다 더욱 이世宗己酉五月(同實錄卷四十四第十七張)에는 撫制鄭招等에 命하야 農事直說을撰케하고 그序가 잇서 일럿스되 먼저 農事가 天下國家의 大本이되므로 自古로 聖王이 힘쓰지 안흔이가 업는것을 말하고 李朝太宗께서 儒臣들에게 命하사 傳來되는 農書를 求하야 取捨를 分明히하고 그우에 鄕語으로 附註하야 刊行한事實이 잇는것을 밝히엇다 여기에서 主上殿下(世宗)가 民事에 留意하사 各道農老에게 經驗을 듯게하고 古書를 參考하야 鄭招와 卞孝文으로 撰成케되니 이것이 바루農事直說이라고하는것이다. 그러하야 이책은 農事에 關한것이外에는 아모것도 加入하지안코될수잇는대까지 簡直하게하야 山野의人民으로하여금 알기쉽게맹글어鑄字所에 命하사 若干本을 印行하셧다는 序文이엇다 달리 世宗丁巳七月(世宗實錄卷七十八第十五張)에 傳旨各道監司의글에 歲在己酉寬刊諸書撮百農事直說頒于各道라는 文句를 合한 長文이 잇스니 이책이 世宗朝에 編輯刊行되것임은 틀림업다



臨床醫學의機能과 醫療制度管見 ②

李鶴松

以上略述한 第一及 第二階段即 病歷과 理學的檢査의結果로 疾病의 本體를 把握하는것이 患者의 貧擔을 적게하는意味로보와 매우조흔일이나 이것만으로는 그病의 本體를 究明할까한診斷上根據를 어듯수업게되는때가 적지안타. 그럴때에는 醫師의 時間消費와患者의

貧 擔增加의 弊는 잇스나 不得已診斷上根據가 될만한 檢査成績을 提供할 特別檢査方法을 利用하게된다 即理學的方面으로 엑쓰光線의 透視 或은寫眞化學方面으로 尿糞 血液 脊髓液等의 成分分析 細菌學方面 病理組織學的方面 病理機能學的方面等의 檢査를施行한다

患者의게서 聽取한 病歷과 上述한여러가지 檢査結果를 分析或은綜合하여 醫學的理論과 臨床的經驗에 依하여 思惟過程을지나 疾病의本體를 把握하게되면 即診察에서어든結果를 吟味하여 診斷을 내리게되다

診斷으로 疾病의 本體가 究明되면 그疾病에 對한對策 即治療方針을 세운다. 疾病의 種類에따라 그治療하는方法이 다른것이나 이것을 大別하면 藥劑를 使用하는 藥物的療法手術을 要하는 手術的療法

血 淸을 使用하는 血淸療法 엑쓰光線 紫外光線 電熱等을 利用하는 物理療法等이 主要한것이다. 그밧게患者病床의 位置에따라서 大別하면通院治療 自宅治療 入院治療 轉地治療等이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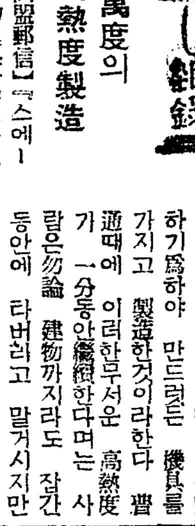
臨床過程과患者의 生産能力

前述한 臨床過程에서 보는것과가티 患者의 職業 家庭生活狀態等 社會的人間을 對象으로한 點이 多少잇스나 그全過程의거이 全部가 生物學的人間을對象으로한것은 明瞭하게 알수가잇다 勿論 人體에 이러나는 生活現象은 單純한物理化學的 現象에 還元시킬수업는 高次現象이나 그分析方法으로 物理化學的或은 生物學的方法을 必要로하는것은 두말할것이업다 그럼으로 生活現象의 異常即 病的現象을 分析 或은 治療하는데도 自然科學的方法이 主要한地位를 占領할것이다 다시말하면 臨床醫學이 疾病의 診療를하려할때에 對하는 人間即患者를 主로生物學的人間으로 對하는것이 無理업는일이다. 그럼으로 臨床醫學도 그機能을 完全히 發揮하려면臨床醫學을 誘導하는 基礎醫學과 臨床醫學自身의 發達이 大端히 必要하다

그러나 臨床過程의 實現은臨床醫學을 運用하는醫師와

疾 病을가진患者와 接觸하는데서 生기는까닭에臨床醫學의 機能發揮에는 臨床醫學自身의發達外 또한가지 重要한 因子가잇다 그것은 醫師와患者와의 接觸頻度의 大小와接觸時間의 長短에는 民知等여러가지影響 因子가 잇을것이나이러한 醫師와 患者의 接觸頻度時間等關係를 制約하는것은 社會的經濟的 關係이다. 다시말하면 大多數의 患者는 一定한診療料 治療費를 支拂하는 經濟行爲를 經過한後에 비로소 醫師와 接觸할수잇는 制度미에잇다. 그럼으로 患者가 醫師를接觸하게하는 重要한條件은 患者의여러가지 能力中 生産能力이라하겟다 따라서 患者의 生産能力은 臨床醫學機能의 發揮를左右하는 一因子인것을 알게되다 大多數의 患者가 病院門까지 오지못하는것은 勿論할것도업거니와 僥倖히 病院까지 오는患者에 잇서서도 完全한 臨床過程을 實現시키기 어려운境遇에 多多히 逢着하게된다 體溫을測定하고 打診聽診가튼 簡單한診察을밧는데는過大한 經費가所用되지안흐나 이것으로는 充分한 診斷을 엇기어려운境遇에 特別한 檢査方法으로 診察하여야할 必要를 切感할때에도

患 者의 支拂能力이 弱한關係로 不得已 不充分한 診斷으로 治療를 行하게되다. 打診聽診과가튼 簡單한 診察로도 確實한診斷을 내릴만한 老練한醫師에게 診察을 바드려면 그도 相當한費用을 要한다 이것은 醫學의發達만이 그機能의 發揮를完全히 하지못하는것을 보여주는實例이다.



攝氏五十萬度의 高熱度製造

【스톡홀름發同盟郵信】『스에ㅣ덴』의有名한 物理學者 벤쿠트에도렌』氏는 最近웁사라ㅣ大學의『노ㅣ벨』賞受賞者『시ㅣ크반』敎授의 實驗室에서 攝氏五十萬度의 記錄的高熱度를 製造하기에 成功하얏다 그高熱度는『에도렌』氏가 各種元素의 電子的特性을 研究하기爲하야 만드러든 機具를 가지고 製造한것이라한다 普通때에 이러한무서운 高熱度가 一分동안繼續한다면는 사람은勿論 建物까지라도 잠간동안에 타버리고 말거시지만이때에는 그熱度가 電氣의『스퍼ㅣ크』에서 發生한것이기때문에 繼續時間은 불과一秒에百萬分毫라는 아조짧은時間이라한다

新刊紹介

▲劇藝術 第四號 發行所 京城府積善町一六九 詩文學社 振替京城一八六〇番 定價十錢 送料二錢

▲婦人公論 六月號(主幹者白玫)文人二十歲의初여름…張赫宙外諸氏 危機一髮(小說)…康秋岡外 散篇 마음의故鄕(詩)…吳河潤外諸氏 史上에빗나는女傑들、朝鮮女流文學의展望…洪曉民等其他 發行所 京城府竹添町一丁目一〇 四海公論社 振替京城九八六〇番 定價二十錢 送料二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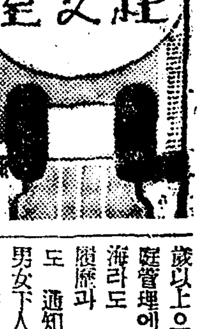
▲女性展望 六月號 發行所 東京市町二ノ三ノ三 婦選獲得同盟 振替東京七〇三八三番 定價十錢

▲福音과宗敎敎育 五、六月號 發行所 馬山府上南洞七四 慶南老會宗敎敎育協會 振替釜山五五三九番 定價一年二十錢

▲靑年 六月號 發行所 京城府鐘路二丁目九 靑年雜誌社 振替京城一〇三八番 定價十錢

▲童話 六月號 發行所 京城府鐘路二丁目四五 童話社 振替京城五八七〇番 定價五錢

▲民衆時報 第二十二號 (旬刊) 發行所 大阪市東成區東小橋北之町三丁目七 民衆時報社 振替大阪五二八四〇番 定價一部五錢



▲李哲伊氏로부터 貴社社交室을通한 晉信에對하야 左記와如히應함

一、住居 江原道平康郡楡津面后坪里杜鵑聲갓치안는僻陬地 金順龍

▲李英善兄이여! 十餘年前에奉天서作別한後로消息을몰나서 답답하여數次故鄕으로 아라보왓사오나 알수업사오니 퍽이나답답합니다 한번맛나면 事業上相論할일이만사오니 通信이나하여주소서 讀者諸氏中 李氏를아시는분은 紙上又는下記로通知하여주시면感謝하겟습니다 李氏의原籍은 全南麗水입니다

上海郵政信箱二〇二〇號 金東建

▲生의友人이(實業家)家庭管理員(女子)한분을求하오니 二十五歲以上으로서 普通學識以上의家庭管理에 經驗이잇는분으로 上海라도 永住하기를願하시는분은 履歷과 또月給을얼마나願하는것도 通知하시오家族은大人三人과 男女下人各一人

上海靜安寺路靜安別墅三十二號 大同貿易公司 李大中

▲英文研究者諸氏께告함生에게 井上十吉先生著『井上英和大辭典』(中古品)이 有하옵니다 此를購入希望하시는분은 本價六圓五十錢을 試圓價로 廉賣코자하오니 至急히 小爲替로 付送하면即時 送本하겟습니다

新義州府彌勒洞一六七番地 梁孟方 梁福連

▲本人家에 舊學好書籍數十種이有하옵난대 廉價로讓渡하겟삽니다 누구시던지博覽에有志하시난분은 社交欄으로나 本人住所로 相議하시오

易經備旨 禮記 春秋左傳 孔子家語 朱文公家禮 東國歷代史略 朝鮮四千年史 中國歷代史略(自秦始皇至明季)漢書評林 東萊博義 南華經(莊子)白香山詩 衛生大鑑 增補算法統宗 古文眞寶前後集 安之亭先生 創設하신辛亥驗社集을 賣渡或交換하시라면알리어주시오

義州郡月華面午川洞 申雲秀

▲四十二歲된男子입니다 今年十九歲된子息이잇는대 어떤女子와사랑을하야 自己의할일을못하오니 그사랑을容認하리까? 그러치아니하면 멀리外國으로 工夫를보내리까? 그女子는別다른 험은업는 普通女子입니다 高賢하신意見을 讀者諸氏께問議합 (김제 中年紳士)

▲北靑欽知生에게奉함 大正二年陰五月十日은 大正二年六月十四日 紀元二千五百七十三年입니다 北靑生이여 지금부터 서로반가운書信도 往來하고뒤숭숭한社會에서 새로운空氣를 먹으며 이아프로 힘잇게나가봅시다 不備禮

黃海道瑞興邑內 申昌成 白

▲大正四年陰十二月十一日戊時는即大正五年陽一月十五日(土曜日)午後八時至九時까지옵시다 大正四年陰十二月十一日은即乙卯年己丑月辛亥日戊戌時옵시다 (正本千歲曆記載)

▲苦痛人의게 問議하신書籍中두冊은 左記書店에 注文하시면廉價로사실수잇습니다(古本)

東京市中野區檜山町四番地 言史堂書店 振替東京七六四六八番

一、肺病患者は如何に養生すべきか 定價一、八〇 實價一、二〇 送料一二

一、肺病に直面して 定價三、〇〇 實價九〇 送料一二

(咸南新上S)

▲本人은某官廳에 勤務하는餘暇 筆耕을해오는中인대 事情에依하야 廉價로讓渡코저하오니希望하시는分은 直接來談或은書信으로問議하야주시요

京城彰義門外付岩町二九一、 梁在謨

▲昭和十一年五月卅日附問議件 大正二年陰五月十日은 陽大正二年六月十四日 土曜日이옵기答上함

全北井州邑水地里五九五 全文在

▲海童白蘭秀兄, 당신에큰뜻을 내가아오 至今은 何處에서事業을始作하셧는지, 直接弟에게通知하실수업습니까? 寬厚히生覺하시고!

黃海道長連邑 崔炳定

▲京城府內 又는其他大都會地 公立病院又는 個人病院에서 醫師를 採用하실분이든지 又는同業하실분이 게시면 讀者社交室又는 下記住所本人으로 問議하시요 相當한經驗과技術이有한 醫師를 紹介하겟습니다

府內淸進町二〇四 金時成

▲左記書籍二冊을 廉價로放賣하려하오니 所用되시는분은 直接通知하여주시기를바랍니다 鄭芝鎔詩集과 朝鮮詩人選集과交換하여도조ㅎ습니다

世界文學傑作集 李春園作品集

鎭南浦府碑石里 權松岩

▲四月十八日附의 市內一讀者에게答함 大連港에서天津으로貿易商을經營하는데 그範圍는알수업습니다만은 自己가直接中語를通하든지 不然이면 中語通하는者와 同業을함이可할가합니다. 短期日內로 敎授又는獨學으로能通하기難할듯합니다 貫鐵町一生

▲讀者諸氏여러분中 讀書家로 배움을 要求하여도冊이업서 못읽는이는 서로書籍을 交換하여 보심이 엇더합니까 願하는이는 住所를 通知하시고 所持冊名을 記述하면 즉시내게잇는冊을 적어보내여 交換하여드릴랍니다

黃海遂安郡栗界面雄洞 金碧巖

▲力量잇는 新人을主로한 定刊六十頁內外의 文藝誌를發刊하라하오니 趣意에 贊同하셔서自信잇는力作(詩나短篇)을投稿하야주시면誠實히 對하겟사옵나이다 五月十日限

京城府本洞町一ノ一〇〇 閔泰奎方 新人社

▲讀者여러분中에左記書籍을파실이가게시면알려주시기바라나이다 記 金基柱編『朝鮮童謠集』

元山府舘石洞二ノ七 朴暎河

▲讀者社交室五月三十日附『北靑欽知生』과『咸北慶興局對岸金塘一讀者』에게 答함

大正二年陰五月十日은同年六月十四日(陽曆)

明治四十年陰八月二十四日은同年十月一日(陽曆)

昭和十一年五月三十日

京城安國町五二ノ六 曺陽煥

▲小生은當年二十一歲 專門學校在學中인바 實校生家庭敎師를希望하옵는데 其方面에 多少經驗도잇고 俸酬도要求치안코니有意하신분은 本社交室을 通하야住所를通知하여주시요

府內玉仁町 K讀者

★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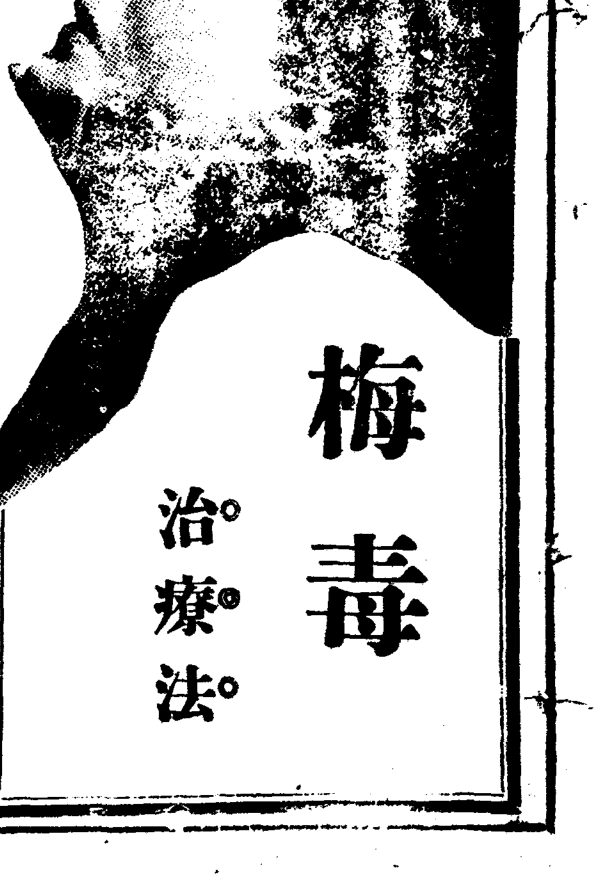
六月十六日(火) 舊曆四月小 (廿七日)

己巳·木·房·閉

●祭祀裁衣納財에宜함

●小滿二十一日(陰初一日)

●芒種六日(陰十七日)



梅毒 治。療。法。

至今부터警戒를要하는 腦梅毒의併發

內臟과脊髓를犯하야 神經衰弱과가튼症狀

요지음氣候는, 初夏라고는하지마는, 氣溫의變動이만코特히梅雨期라는惡氣候때를압두고, 梅毒으로辛苦하는사람은, 十分警戒를要합니다. 어떤醫學者들도, 梅毒과氣溫의關係를發表하여거니와, 元來梅毒의菌體는潛伏性인故로, 外界의氣溫의衝動을맛는것이敏感이므로요지음과가티氣溫의高低가甚한때에는病勢는顯著히惡化하고, 또는再發하는것입니다. 特히

脊髓를犯하야

일어나는腦梅毒가튼것은, 봄부터여름에걸처서만코, 이때문에처음에는神經衰弱과가튼症狀을나타내서, 記憶力이減退하고, 注意力이缺乏하야, 道德觀念이全然업서지고, 다음에社會的犯罪도例事로하게되는等一梅毒菌으로因하야, 頭腦를逆轉케하는것은 참으로想像도할수가업슬만합니다. 誇大妄想狂, 偏執狂, 憂鬱狂, 遲鈍性病症等等, 모두 梅毒의 징입니다.

脊髓癆의初期

는診斷을그릇하기쉬운症狀으로座骨神經痛가튼激痛이作하고視力이衰하며, 小兒가거름마타는것처럼비척비척하야運動不調가되고, 뒤에는너머지는悲慘한狀態를일으킵니다. 이와가티梅毒은, 單히横疙이라거나 여드름부흠이나, 腫物, 脫毛, 發音嘶嗄等의外科的症狀外에內科的무서운續發症을일으키는故로, 늘最善의治療가緊要한것입니다. 베루쯔丸이梅毒專門의內服藥으로, 世上에定評이잇는것은, 새삼스럽게말할것도업지마는特히그

主能이되는點

을列擧하면, 殺菌과同時에梅毒性의모든毒素를 排便과함께體外로 排泄하는것不純物質의 新陳代謝를除去하고 清淨한血液의 循環을旺盛케하는 所謂베루쯔丸獨特한三大作用을 具備하야이三作用으로因하야 體組織을 改造하고, 諸內臟에好結果를 齎來하고, 胃臟等의消化機能을整調케하므로, 어梅毒性의神經衰弱, 류마티스, 動脈硬化, 便秘等等, 梅毒性疾患에對하야, 服用이날이갈수록快癒케하는것이, 이베루쯔丸이니世上에正當한效果를認知함만한所以도이貴重한主能에基因하는것입니다.

모든梅毒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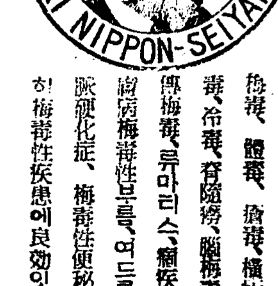
體毒, 瘡毒에, 또痼疾인皮膚發疹에, 腦梅毒, 遺傳梅毒, 脊髓癆에基因하는것입니다.

頭痛과便秘도업고 질거운每日을보내

大學附屬病院皮膚科 野地末子

前略容恕하십시요. 나는 五六年前부터貴社發賣의베루쯔丸을服用하고잇사온데, 辛苦든過去를생각하면, 貴社의恩惠가뼈에사모처기쁘게날을보내고잇읍니다. 頭痛과肩臂痛, 耳鳴, 便秘가되기쉬운일에疲勞를느끼며間或皮膚發疹이잇어苦生하더니, 이京都로오든도, 걸르지안코貴社의藥을服用하고잇는中에 그러케重症이든病狀이 아조좋아서고, 게다가, 脚氣氣分도잇는것이그것도지금에는업서저 정말貴社의藥의效果에는感謝하고잇습니다. 그러므로, 今日에는, 베루쯔丸업시는하로도지낼수업는내가되엇습니다. 그런데참으로未安하오나베루쯔丸一個月分을至急히보내주십시오. 只今, 去月에보내주신것도남아잇지가업마안되오니, 아못조록速히發送하시기를바랍니다. (下略)

梅毒과體毒 梅毒性부름에 베루쓰丸



藥價 六日分一圓、十二日分二圓、廿日分三圓、卅五日分五圓、七十五日分十圓、百六十日分廿圓、二百六十日分(德用)卅圓

送料四十二錢、代引十錢五增

梅毒、體毒、瘡毒、橫疙、濕毒、冷毒、脊髓癆、腦梅毒、遺傳梅毒、류마티스、痼疾인皮膚病梅毒性부름、여드름、動脈硬化症、梅毒性便秘等諸般의梅毒性疾患에良效잇슴

東京市日本橋區濱町三丁目四十番地

發賣元 鈴木日本製藥社 社主 鈴木淸二

振替東京一〇五番 電話浪花八〇番九〇番

代理店 京城 木村、新井 釜山 大黑、藤田

連載野談

布袋記 (四十)

申鼎言 作 / 金熊超 畵

그미인의 눈물(十三)

그미인이 도망함을 친그잇흔날에야 대궐안이 발칵 뒤집히엿다。

개루왕께서는 크게 진노하사 우선 그미인을 잘직히지 못한 궁녀들을 잡어 가두신뒤에

『에이。흉악한년! 제가 나까지 긔어히 욕을 보혀!』

하시며 곳 날낸군사를 불으사 사면팔방으로 뒤를 쫏처 긔여코 산채로 잡어올것을 엄하게 분부하섯다。

그왕명을 받든 군사들은 어듸로 말굽을 내놋케하여야 올홀는지 지향할길이 업섯다。

그러나 덥허노코 말을 채질하야 향방업시 나섯다。

『허허。허무한일!。허무한일!。』 바람을 잡으려 나선것도 분수가잇지。어 가는 거름이 어듸가서 끗칠 거름인가!』

하며 사면팔방으로 헛터저 가는 군사들은 아마도 그길이 꿈을 일울수업는 괴로운 길인것을 탄식하얏다。

그런데 마츰 송파강을 향하고 달려오든 군사가 멀니서 강언덕에 행동이 수상한 녀자가 안저잇는것을 발견하엿다。

『올치。저녀자가 그녀자?。』 하고 말을 재쪽질하야 달여올 새 그녀자는 서슴지아니하고 강에 뛰여드는것을 또한 보게되엿다。

『허풀사、분명히 그녀자인데。』 하고 쫏처오든 군사는 강언덕까지 니르러서는 그녀자를 집싸고 흘너간 물결의 뒤떨어진 거품만 바라보앗다。

『제가 닭쫏든개。울타리를 처다 본다는것도 분수가잇지。』 하며 그군사들은 어린듯이 서서 물결만 바라보고 잇다가 할일업시 돌아와서 그。자세한 사실을 왕께알외엿다。

개르왕께서는 그 군사의 알외는 말슴을 들으시고 『에이 지독한년。에이 지독한년!。』

하신뒤에 다만 그궁녀들만 엄하게 형벌을하섯다。

그런데 그미인은 뒤에 쪼처오든 군사를보고 곳 치마를 무릅쓰고 강에 뛰여들자。뚝아닌 널판자가 떠내려오다가 그 미인의몸을 바텃다。

그리고 바람결가티 압 물결을 헤치고 흘너갓다。

『아!。이상도 한지고。어 널판자가 어인 것고?。나는 죽을내야 죽기도 어려운 신세?。아니 이널판자가 뜻아닌것이어니 나를위하야 역시 뭇슨 뜻아닌 증조나 아닌가?。흘너라!。흘너、내남편이 이물결을 타고 죽엄의 길노가섯스니 내어이 이물결을 떠나리。흘너라、흘너、끗까지 가보자。』

그리는 사이에 그뜻아닌 널판자는 곱게、곱게 흘너가다가 어느섬에 이르러서는 흐르든것을 딱머므르고 섯다。

『이것은 또한 웬일이며 어섬은 웬섬인가』

하고 그미인은 망경창파중에 외로히 서잇는섬이 맛치 자긔의 외로운 신세와가튼듯、유심이 그섬속을 드려다보앗다。

울고、울고、또우러서 퉁퉁부은 눈동자를 휘휘 내돌으며 섬속을 드려다 보다가 어느수풀밋헤 남자한사람이 쓸어저잇는것을 보앗다

『아!。저이가 혹시 내남편이나 아닌가!』

하고 그미인은 공연히 반가운듯 곳 널판자를 내려서 그사나히가 쓰러저잇는 곳까지가 그 쓸어진 사나히는 틀림업는 자긔 남편이엇다。

다만 다른것은 전날에잇든 두눈이 업서진것뿐이다。

『나여긔 왓소、나여긔 왓소。』

하고 그미인은 남편을 얼사안고 통곡하얏다。

『어、나의 사랑하는 안해!。이 어인 말인가!』

하며 그 사나히도 그미인을 얼사안고 목을노와 통곡하얏다。

이두내외는 하늘이 도옵는 인연으로 외로운 섬속에서 다시 만나 실컷울엇다。

그러다가 겨우 우름을 진정하고우선 풀뿌리를 캐여 허긔를 면한뒤에 다시 그널판자를 타고 고국인 백제땅을 멀리 멀리 하직하고 이웃나라인 고구려를 향하야 떠나니 그섬일홈은 천성도(泉城島)라하는 섬이엿다。

그미인은 그뒤 고구려땅에 나려서 남편의 손목을 끄을고 마을마(蒜山)라는 산미테 올라 바나를 따고 그곳에 두물을 의탁하게되엿다。

이소식을 들은 그곳 사람들은 그미인의 내외일이 너머나 긔이하기도하고 너머나 불상도하야 눈물겨운 도옴이 날노 늘어갓다。

이때 그미인은 끈어젓든 인연을 다시이어 살어갈새 눈빠진 남편이엇만은 여전히 소중히 섬기고 움마살님사리엇만은 대궐안 살님보담 오히려 호광스러운것으로 생각하얏다。

대저 그미인의 남편된 사나히는 도미(都彌)라는 사람이니 어도미내외의 사랑엽헤는 부귀도 업고 위엄도업는것을 감복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업섯다(이편끗)

映畫企業의將來 (二)

崔章

또그映畫輸出高는大戰前의一九一二年에 三千三百萬呎에 不過하엿스나 一九二五年에는 二億二千三百萬呎에 達하엿고 船積價格의 八百六十三萬弗에對하야 貿易外受取勘定으로서 計上된映畫의 海外使用料收入은 七千五百萬弗로 計算된다。

米國의 이러한映畫企業의 發達은 最近의段階에이르러 企業의集中化運動을 招來하엿고 새로운發聲映畫의發生은 設備 技術等의關係로 電氣 蓄音機와가튼他産業과의 트라스트를形成하엿다。이리하야 一九三四年十一月加州知事選擧時에 압트만신크레야가 『하리우-드의爆擊 우을街를때려부서라 우리들의손에映畫를奪還하여라』는 政治的스로-간을 내세우도록 이映畫企業은 高度의資本主義的 獨占形態를取하고잇다。

그러나 以上의 數字는 只今부터 十年前인 一九二五年度의 調査이며 現在 새로운 統計에依하면 世界各國의 常設館總數는 約六萬五千館에 達하엿슬것이라고한다。그리고 觀客數에잇서서도 漸次 增加되엿스며 米國의 例로만 보드래도 그동안一年總人員이 百億人을 突破하엿고 이興行收入이 七億弗 乃至 十億弗로 推算된다。따라서 歐米一等國의 人口 每人 平均映畫觀覽度數는 一年間 四十回乃至 五十回가량이다。

다음에 日本內地에 잇서서의 映畫企業狀態는 商工省 調査에依하면 昭和六年現在의 興行會社는 六四四會社 그資本金 또는 出資金은 一億一千九百三十四萬六千圓이며 그中 株式會社는 五四四會社 그資本金은 一億一千六百三十四萬一千圓이다。그러나 阿部賢之助氏의 著書에依하면 投資總額을 一億六千萬圓程度로 豫算하엿고 資本金五萬圓以上의 映畫製作所를 十九個所指摘하엿스며 또다른 統計에 依하면(改造社版 經濟學辭典) 個人經營을 包含하야 二億五千萬圓으로 計算하여잇다。이와가티 數字上多少의 差誤는잇스나 映畫企業에對한 投資額이 累年增加하고잇다는點과 이産業의將來性을 樂觀하고잇는點만은 諸說이 合致되여잇다。

그리고 日本內地의 映畫製作數는 米國의다음 世界第二位를 占하야 昭和九年度合計本數는四百四十本이며 그中六十本이 發聲映畫이다 昭和九年度日本映畫檢閱狀況을보면 件數 一七、四六九 卷數 八〇、一二六米突數 一八、二三三、〇〇〇이다。

어日本內地의 國産映畫以外에 外國의 輸入映畫도 相當한數爻에 達하여잇고 一九三五年에封切된 外國映畫는 三百三十一本 昭和八年度現在活動寫眞用필림의 輸入額은 三百七十四萬四千五百二十圓 現像필림의 輸入金額은 約七十萬圓이 된다 그리고 米國으로부터 輸入된 映畫만이 八百五十萬呎이다。

最近五年間의 日本內地의映畫館과映畫觀覽者總數는 內務省警保局의調査에依하면 다음과갓다

	日本內地映畫館數
昭和三年	一、二六九
昭和四年	一、三七九
昭和五年	一、三九二
昭和六年	一、四五八
昭和七年	一、六〇九

日本內地映畫觀覽者總數(單位千名)

	常設館	常設館以外	總計
昭和三年	一四〇、三六三	二一、〇一六	一六一、三七九
同 四年	一五三、四八九	二四、〇五五	一七七、五四四
同 五年	一五八、八四八	二六、五五〇	一八五、三九八
同 六年	一六四、七七七	二八、二七七	一九三、〇五四
同 七年	一七七、三四四	三〇、三二〇	二〇七、六六四

最近의 이에關한數字는 알수업스나 經濟情勢社發行昭和九年下半期『株式年鑑』에依하면 昭和八年의常設館入場人員은 一七八二四五千名이며 常設館數는 一四九八館發聲裝置 五七六館으로되여잇다。그리고 昭和八年度의東京市內映畫常設館은 二四一館(昭和元年 八〇館)이며 그入場人員은 三八、五二五、六四三名(昭和元年 一、一四、六九五、一九二名)이고 時事年鑑에記載된日本六大都市의演劇 映畫 演藝에關한統計數字를調査하여보면 劇場數爻에잇서서 映畫가演劇 演藝의合計에匹敵하며 그入場人員에잇서서는 도로혀 一倍半以上에 達하여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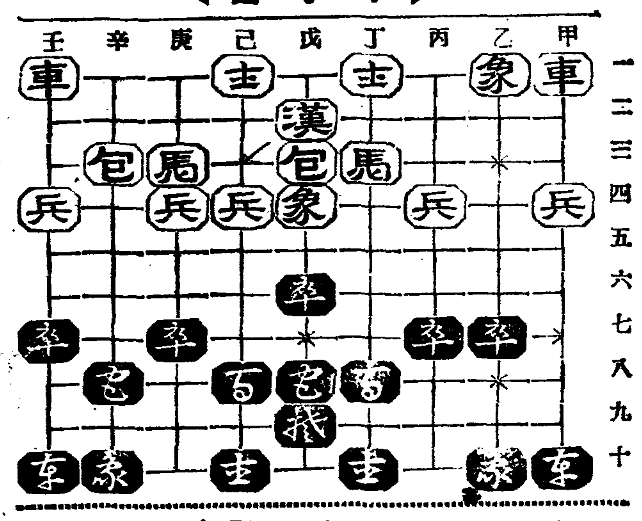
폴、로브슨 유니버살作品인 一九三六年의쇼·보트에出演하야 人氣를끌고잇다

將棋名手對局譜 (二)

本社主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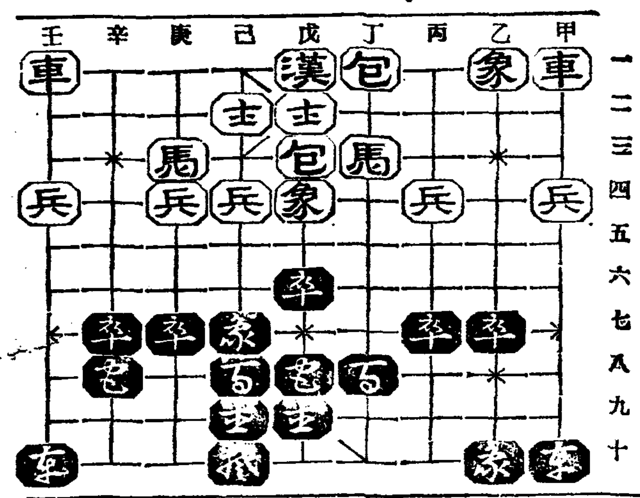
漢 李在鳳 楚(先手) 全于石

◀十手圖▶



◀二十手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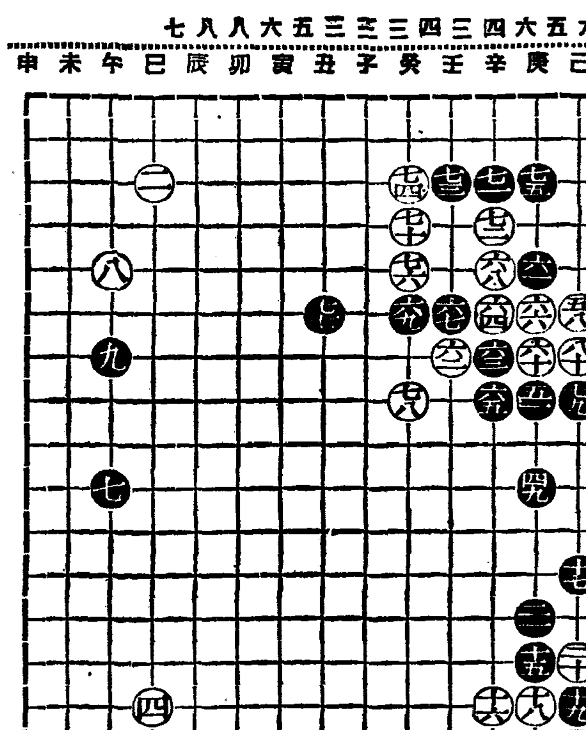
壬七卒—辛七 / 辛三包—己三 / 辛十象—己七 / 戊二漢—戊一 / 己十卒—己九 / 丁一士—戊二 / 己三包—己一 / 丁十卒—戊九 / 己二士—己三



圍碁對局譜 —5—

本社主催

白 柳鎭河 / 黑(先) 丁奎泰



●五三 辛의八 ○五四 庚의六 ●五五 壬의六 ○五六 辛의五 ●五七 癸의六 ○五八 癸의四 ●五九 辛의三 ○六〇 辛의四 ●六一 壬의三 ○六二 癸의三 ●六三 庚의三 ○六四 癸의五 ●六五 丑의六 ○六六 癸의八 ●六七 己의八 ○六八 己의七

蔡極文氏評曰 黑은 東邊自耳角을 完結하고 白은 戊의 七八連馬를 北邊까지 進出하나 均衡으로 看過되다 白이 癸의八로 乙點을 試함은 黑便에 刺戟心이 不無할뜻 黑이 白乙點을 呑取치못하면 黑左右引出에 險路多端하니 正是觀光人鼓足之辰이로다

라디오

十五日 (月曜)

◇午後六時三〇分 兒童劇『希望의무지개』全二景 버들피리會 —崔秉和原作太成均脚色—

【配役】 英姬…姜信任 先生…李雲海 아버지…鄭元根 富順…李玉珠 洞里老人…韓東熙 醫師…崔景得 生徒一…金容順 生徒二…鄭淑花

指揮 太成均 伴奏 버들피리伴奏團 解說 鄭戊順

◇同六時五五分 兒童新聞

◇同七時 産業뉴-스 經濟解說

◇同八時 講演 中央高普 李常春 〃食物과壽命과의關係〃

◇同八時三〇分 唱劇調 一、短歌 竹杖芒鞋 二、唱劇調 沈淸歌 丁貞烈 鼓手 池龍九

◇同九時 孔明歌外 一、孔明歌 二、배다락이 三、齊邊歌 四、개성난봉자 五、방아타령 白牡丹 鄭錦紅

◇同九時三〇分 歌詞 一、將進酒 二、漁夫詞 文明仙 金蕉紅 大笒 金永根

第一放送

◇午後六時 (名)이야기 淺田七五三

◇同六時二五分 (東)英語講座 熊谷榮

◇同七時三〇分 (東)講演 門野重九郞

◇同八時 (東)管絃樂 日本放送交響樂團

◇同八時三〇分 (東)義太夫

◇同九時 (東)講演 神田伯治

十六日 (火曜)

◇午後〇時五分 古談 白日夢 愼麟範

◇同三時一五分 夏期衛生講演 (一)夏節에생기기쉬운病 府民病院內科長 朴鍾榮

◇同六時三〇分 兒童劇『希望의무지개』全二景 —崔秉和、太成均 脚色—

【配役】 英姬…姜信任 先生…李雲海 아버지…鄭元根 富順…李玉珠 洞里老人…韓東熙 醫師…崔景得 生徒一…金容順 生徒二…鄭淑孔 指揮 太成均 버들피리會

伴奏 버들피리伴奏團 解說 鄭戊順

◇同六時五五分 兒童新聞

◇同七時 經典解說 牧師 都瑀連

◇同七時 趣味講演『群衆心理와流行』 金晋燮

◇同八時三〇分 梅花打令外 一、달거리 二、적수단신 三、매화타령 四、리별가 五、박연폭포 六、노래가락 李眞紅 細笛 高載德 崔壽成

◇同八時五〇分 라듸오드라마 『悔悟』 二景 라듸오劇研究會 金英洙…(學生)…張白水 金元洙…(英洙의父)…李流星 朴氏…(英洙의母)…崔英純 金喜淑…(英洙의妹)…池順姬 李貞姬…(英洙의戀人)…張仁蕙 高秉俊…(英洙의友人)…金仁鏡 指揮 李如水 效果 朴一松

◇同九時三〇分 伽倻琴散調와倂唱 一、散調 가、다스름 나、중모리 다、자진모리 二、倂唱 가、短歌 나、唱劇調夢中歌 沈相健 鼓手 丁元燮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 (東)基礎佛語講座 丸山順太郞

◇午後〇時五分 (東)人情噺 入舟亭虎橋

◇同〇時三五分 (大)國民歌謠 永田絃二郞

◇同四時二〇分 (釜)野球試合實況

◇同六時一五分 (大)講演 宮城芳子外

◇同七時三〇分 (東)講演 和田性海

◇同七時三〇分 (東)講演 森德治

◇同八時 (熊)俗曲

◇同八時一〇分 獨唱과二重唱 平間文壽 井上게이코

◇同八時五五分 (東)라듸오、코메듸

◇同八時四〇分 (東)三曲 福田榮久外

主催 野談同好會
後援 朝鮮日報社學藝部

端午노리의舌戰三合
演士……尹秋岡·黃材景·申鼎言

野談과漫談의밤

時日 六月二十三日밤八時 (陰曆端午날)
會費 普通八十錢、學生六十錢 (朝鮮日報讀者半額)
場所 公會堂

本社主催

婦人病 대하증에

女子醫學博士가 體驗하고推奬한 內服藥·命之母 外用藥오기나球

◆대하증의原因과 治療法

대하증이라는것은 月經以外에 陰部에서 맑은물이흐르기도하고 或은 코스물가튼것이흐르는것인데 그原因은 男性에게 淋疾이나 梅毒가튼 性病이傳染되거나 流産産後에나 月經時에 不注意와 房事過度나卵巢炎、膣炎等모든子宮病으로부터생기는것입니다

대하증의 初期에는코스물이나 계란흰자가튼물이흐르다가 점점甚해지면 피고름이나오게됩니다 그러므로대하증이잇스면局部에서惡臭가나며子宮內部의 모든機關에傷害를밋치아마後日에 惡結果가 반다시생겨서治療를할내야할수업시되여一生을버리게됩니다。이와가치무서운 대하증을 보통부인들은 女子에게는당연히누구에게든지잇는것이거니하고治療를게을니하는분도잇스나실상은 이러케放任해두는동안에 病菌은 더욱繁殖되고 患部는刻刻으로破傷됨을따라 身體는점점衰弱해지고 頭痛眩氣나며 手足腰部冷하며下腹引痛等의모든 病勢가倂發하게됩니다 그뿐안이라 대하를 가운데는 酸性의毒素가잇는關係로男性에게바든精虫을毒殺식히므로 不姙症이되거나、或姙娠을한다하드래도 流産이나早産이나死産을하고마는 悲慘한運命에빠지게됩니다 이와가튼病이 잘낫지못하야 남들으는한숨과눈물로번민을하며 지금까지平和하던家庭도 子女를出産치못하는탓으로 차차不和하게되여 夫婦의離別까지맛는수가허다하오니하루바삐 治療하셔야합니다

그러나 대하증을根治하는醫藥이發達된現代醫學時代에 子宮病根治藥인命之母를服用하시면 大端한效驗을보실것입니다 여긔서대하증을根治하게하는 內服藥命之母를服用하시면 血液이淨潔하게되는同時에 子宮의호르몬이旺盛하여지며 不順하던月經이順調롭게되며 대하증이 根治됩니다 또한外用藥으로局部에直接使用하는 오기나球도잇스니 內服藥命之母를服用하시면서 外用藥오기나球를 倂用하시면더욱 速治됩니다 오기나球는 一次試用하시면 그藥效를 알수잇습니다

이命之母와오기나球로말하면 三十餘年의 기나긴歷史를가지고 東洋婦人患者는勿論이오 近日에는 西洋婦人患者들께서도 服用하고 子宮病을全治하고 愛兒를出産하신實例가허다함은 世人에게好評과 本舖에到着한禮狀과 愛兒의寫眞이證明하오니 여러분家庭에子宮病으로苦痛하는患者가잇스면 하로바삐命之母와오기나球의良效에全快하시기바라나이다 더욱이命之母와오기나球는 東洋婦人의體質에 가장適合하게 理想的으로製造販賣하는藥이므로 누구던지 一次試用하시기바라나이다

婦人病良藥

◎命之母의主治効能◎

月經不順 白帶下症
子宮出血 赤帶下症
下腹腰痛 手足冷症
頭痛眩氣 子宮痙攣
히스테리 輪卵管炎
卵巢炎 貧血症

腦神衰弱과産前産後의婦人에게大効함

＝藥價＝ 六日分 一圓 / 十三日分 二圓 / 二十日分 三圓 / 三十五日分 五圓

東京市京橋區入舟町 命之母本舖·笹岡藥房 振替東京五〇五〇番 電話京橋一八八七番

百萬圓보다 貴한쌍동이

埼玉縣 矢代鐵之助様

矢代鐵之助氏는埼玉縣北足立郡指扇村에서 居住하며 同地에서 多年間酒造業을 經營하는분이나 夫婦間에子女間아해를 못낫는故로、이것은 婦人이 病弱한까닭인줄알고 『命之母』를求하야 服用한즉果然效果를어더서 長女次女를 내리나코 寫眞과가튼 탐스럽고귀여운 쌍동이를나어서、적적하던 家庭이幸福에넘치게되엿습니다 쌍동이는 기쁨으로번화하게되엿습니다 養育하기 어렵다지만은 母乳도 豊富하게 나오므로 發育도極히良好하게生長하야 그後로다시도하나를나어서 五男妹를데리고命之母本舖를來訪하야 謝禮까지하고 同氏는『命之母』의藥效에絶對的으로信用하고 近今年三月에는縣役所에서表彰되여 洞婦人에게도 大宣傳을하신다고。命之母는各地有名藥店에서 販賣하지만特히本舖로註文하실분은藥代金을小爲替나 振替東京五〇五〇番으로보내시는것이第一安全하고 便利하지만藥을指定못하시는분은 病勢만자세히記入해서보내시면病勢에適當한藥을 代金引換으로發送합니다

進呈 七大醫學博士가親切히指示하야朝鮮말로알기쉽게자세히쓴婦人病自宅治療書와命之母의實驗集과其他說明書를無代進呈하오니東京市京橋區入舟町·笹岡藥房으로하로바삐申込하시라

お子様の健康增進に

吸收가빨르고滋養에豊富한가장理想的인幼兒榮養料!

『도리고노』는人體活動의源泉이라고할수잇는葡萄糖、果糖、아미노酸을主成分으로한맛조흔滋養料로서胃腸을活動식히지안코體內에吸收되여體力元氣를增進하는故로幼兒의榮養補給에는가장理想的인滋養料임니다

專賣特許의滋養料!

非常히 맛이 조타

虛弱體質인 어린애께……
母乳不足한 어린애께……
榮養不良·發育不良에……
離乳期에 어린애께……

꼭맛조코滋養이되는『도리고노』를給與하시요!

『도리고노』는 다음과가튼 분에게참으로好適!

△虛弱體·腺病體質인분
△病中·病後衰弱인분
△結核症·神經衰弱인분
△胃腸機能이衰弱한분
△貧血症인분·老衰人
△産前産後·姙娠하신분

참으로推奬할수잇는美味와滋養의飮物!

◎來客接待에……
◎病問安·贈與物에……
◎百仲날贈答品에……

全國藥店、食料品店、百貨店에잇다。

ドリコノ
도 리 고 노

躍進咸南의貿易額 八千六百餘萬圓

比前年二千三百萬圓의激增

出超가五百四十萬圓

【咸興】소화십년도의 함남도내 각항(港)의 무역총액은 놀랄! 팔천륙백칠십사만이천륙백이십삼원의 거액으로 전년도에 비하야 이천삼백구십일만륙천팔백륙십여원의 비약적 대격증을 보이고 잇다.

이것을 수이출입별로보면 수이출이 사천륙백십사만칠천팔백구십원이며 수이입이 사천백팔십삼만팔천팔백원으로 수이출에잇서서 일천륙백오십팔만원의 비약적 대격증을 보이고 잇다 중이며 오백사십일만사천원의 출초(出超)를 뵈오다가 항별로보면 원산(元山)이 상천 이며 흥남(興南)이 사천사백사십칠만오천 륙백팔십륙원 단연수위를점하고 잇다

問題의統營普校 校舍擴張決定

【統營】지난번 통영학부형회총회당시 이론이자자하든 공보교 신축교사령하비문제도 결국 진회장 허긔엽씨의 한때실수로 인정하고 긔왕모여둔 돈도잇고하니 그대로 일거반으로 확장하기로 결정하고 이천원예산중 일천팔백원을제한 사백원부족금에 잇서서는 학부형회자금으로써 충당키로 해결되고 따라서 제이공보교전제사설학술강습회(第二公普校前題私設學術講習會)건에 잇서서는 전허현보교학부형회와는 관계가업스나 만치 금번신임되명의원회에서 그전말을 조사하야 인수여하를 일임키로결정되엿다한다

楚山對岸寬甸縣에 四百合流隊集結

船舶市街地等襲擊計劃說에 平北警備機도出動

【新義州】압록강(鴨綠江)일대의 만주국(滿洲國)에는 번무긔(繁茂期)에들어 반만군 조선××군 토벌 마적의 발호가심하야 엄중경계를 할필요가잇다는 정보가 평북도경찰부에 매일과가티 날러드는중 십이일이래 평북초산(楚山)경찰서공와암(公瓦岩)주재소 대안 관전현전자구(寬甸縣碾子溝)에 반만군 왕봉각(王鳳閣)일파 백여명과 조선××군 김세근(金世根)의 일파이백칠십명이 집결하야 그곳 산성곡(山城谷)를 중심으로 시가습격을 계획하고 그중백여명은 압록강(鴨綠江)상의 선박(船舶)을습격하려고 십삼일에이르러 행동을시작하얏슴으로 평북경찰부에서는 사태를중대시하야 십삼일 오전열한시 평북경비기(警備機)를 출동식이엿다한다

鐵道事務所問題로 光州市民大會

目的貫徹에邁進決議

【光州】남조선철도(南朝鮮鐵道)광려선(光麗線)이 금년삼월로서 국철로 인계됨을따라 호남선(湖南線)일부와 송려선 급 경전북부선(慶全北部線)등을 관리 하고저 철도사무소를 광주나 혹은 순천(順天)에다 설치한다는칠도당국자의말을듣든 광주관민유지는 루차관계요로당국에 진정운동하든바 지난십일오후네시에는 광주제국관(光州帝國館)에서 부민대회를 개최하고 진정운동경과보고와 떨사지운동을하야 철도사무소를 설치하자는결의를한후 김재천(金在千)송화식(宋和植)송정학송(松井鶴松)암교조일(岩橋朝一)씨등의 경려의열변이 잇고 오후칠시에 폐회하엿다

량이 이백만타ㅡ스인바 부내생산은 불과십오만 삼천륙백타ㅡ스라한다. 일본미함미아마 부내생산이 부족되여 결국 그대가로 이백오십삼만구천 오백원의 만흔금액이 타지방으로 빠저나간다고한다

全朝鮮弓術會 大盛況裡終了 本報支局後援

【光陽】긔부대광양유림정주최와 본보광양지국후원인 전조선궁술 대회는 예정과가티 지난오십일간에 지러가는 유당공원록음미테서 성대히 개막되엿는바 멀리경성을 비롯하야 각방면에서 참가된사원을 종합한다면 실로일백오십명에달한 공전의 대성황리에 최종막을다덧섯는데 갈은성적별입상자씨명은 다음과갓다

◀弓術(男子部)個人戰

一等 姜宗完(光陽)

二等 李漢洵(麗水) 金正奎(麗水)

三等 張詠鎭(光陽) 權重泓(醴泉) 黃南淵(泗川)

四等 李寅燮(河東) 盧五容(宜寧) 黃珍秀(咸安) 申致漢(麗水)

五等 金漢杜(光陽) 鄭淑斗(河東) 金河玉(求禮) 李芳憲(麗水) 趙文煥(咸安)

六等 李康河(光陽) 曹基厚(谷城) 李洪祚(麗水) 朴範相(綾州) 朴炳卓(靈岩) 鄭常斗(南海) 趙在寶(咸安) 李琪哲(麗水) 金亨杜(麗水) 金達五(泗川)

◀同(女子部)

一等 鄭石蘭(馬山) 二等 鄭燦姬(晋州) 三等 孫聚山(河東) 等 外 吳明玉(泗川) 朴艶芯(南原)

瑞山教育會總會

【瑞山】지난십일오전십일시 중남서산공보교 강당에서 회원팔십여명출석과 하야학무과장(河野) 림석하에 제십사회 서산군교육회총회를 개최하얏는데 유전부회장(有田副會長)의 개회사 를이어 간사최홍원(崔弘源)씨의 회무보고 회원이동보고 소화십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가잇슨다음 윤회장(尹會長)의 주재로 좌긔사항을 결의하고 서산 안면 부석(瑞山,安眠,浮石)각학교의연구발표와 하야학무과장의 학사강연이잇서주고 오후네시산회 하얏다고한다

◇결의사항

一、昭和十一年度歲入出豫算案

一、瑞山敎育會 敎育基金 制定

一、會則改正

一、學事視察規定制定

新興鐵道延長問題 地主와圓滿妥協

市民期成會活動으로

【西湖津】당지발전과 아울러신흥철도연장문제로 수년간을두고 주민의 현안이든바 근일에와서는 속성을 목표로 긔성회를조직하고 신흥철도당국에 진정하는한편 제반교섭운동을 거듭한결과 연장공인이되여 불원공사에 착수하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그간지주의 승락을 원만히 엇지못하고 분주히 닮니면서맹활동을 거듭하든 긔성위원은가일층 드등거리로 되어오든바지난 유월십이일에 서호 주재소에서 지주회와합께 긔성위원 동합석으로 타협한결과 지주측으로원만한승인이되여 인제는 불원공사에 착수하라하며그지가(地價)도상당한 가격이 되다하며가옥이전비(家屋移轉費)도 이십삼내지 삼십원까지 되다한다 더욱당지는 날노발전하는 오늘에 교통긔관도 빈번함이 주민로긔대하든중 원만히 결정되다고 일반적으로 감격이넘치는바이라한다

崔昌樹氏美擧

【金泉】경북김천은 작금에수은주가 구십도 내외를상승하야 삼인처한밥은 일층더하야 인심을 극도로 흉흉케하고잇는데 이에 곡가지 폭등하야 빈민의생활이 근저로부터 어지러워지는 오에 빈민삼백록십여명을 위하야 세금을 대납한 미담이잇다ㅡ 그는 김천읍 황금정(黃金町)에 거주하는 최창수(崔昌樹)씨로서 팔십사등이하의빈민삼백록십사인의 소화십일년도 호세와및 동부가세의전액을 대납한것이라는데 이번뿐이아니라 전자에도 이러한 장거가잇서서 일반민의 칭찬이 자자하다한다

飮料用水枯渴로 進永市內大騷動

各우물附近은宛然히戰場化

上水道施設이最緊要

【進永】근래 희유의 한발로인하야 모판이 버러지고 보리가 것탈나서 련사가 매우우려됨으로 인심 흉흉하다함은 어느지방을 물론하고 대동소이한바어니와 특히 진영(進永)시가일대는 원래 점토질(粘土質)이 되여서 오십척내지 칠십척이상을 파지아니하면 음료에 적당한물이나지안코 따라서 공동우물도 부족한편이어서 평소 우순풍조하든때에도 음료수의 부기든듯 겨왓든바 요사이와 가티 한발이 계속함을따라 여간한샘은 말나버리고 수원이 깁든곳도 모다 감량(減量)되여서 부득이 급수시간과 수량을 제한한곳이 만타는데 미리부터 시간을기다리는군중과 쟁선쟁탈하는등 난리를 연출하며 조금늦거나 약한사람은 한방울도 구경못하고 그대로 도라가는사람이만홈으로 진영시내는 음료수결핍으로 대소동을 일으키고잇다는바 일반은모다 이런경우를 보와서 속히 상수도의 설치를 희망한다고한다

嚴父回甲宴記念 二百圓을喜捨 林炳曦氏의特志

【咸興】함흥부대화정삼정목(大和町三丁目)일흥상점(一興百貨店)주 림병주(林炳曦)씨는 십삼일 그의엄부의 회갑연을 당하야 일금이백원을 함흥부내 함산(咸山)、운흥(雲興)、중앙(中央)、주서(州西)의 네유치원에 각오십원식 긔부하야 일반의 칭송을 밧고잇다

拉致되엿든同胞 四名無事歸還

【山東縣】긔보 지난륙일 정원현제일구 오가보(吳家堡)에서 이주조선농민네명을 인질로 잡어갓든 해림(海林)의부하약이삼명은 빈곤들이 기때문에 몸갑을 주지못하여 온가족들과 친지들은 공포에 싸혀잇든바 아모리가두어두어야 돈이나오지 못할것을안 적괴부하들은 지난구일에 네명을모다 무조건으로 방환시켜 무사히 돌아왓다한다

陸路里의傷人强盜 仁興里에서逮捕

【平壤】지난오월십구일 비나리는새벽세시경 식도를가진강도가 평양부내륙로리(陸路里)비로상점에 침입하여 식도로동사중상을 가하고 현금이 십륙원과 시가삼십원의금시계를 강탈해가지고 다라난 사건은 십삼일오후열두시경 인흥리(仁興里)유곽부근에서 체포되엿다

평양서에서는 륙로리강도사건을위하여전후다섯차례의강도사건이잇섯고 춘전(春田)방사의와 들의 혜방을엇든사건중 어려운사건이 련려여벌행햇스나 범인은 체포되지안혀서 초조하가든때서 범인을수사중이든바 지난십삼일오후 신창리(新倉里)안동 남자가 륙로리강도범인의 인상과 흡사한점이잇서 긴장한가운데에서 수사중 경상리(慶上里)부근에서 발견하고 체포하려는 순간 다라나버려 형사대의비상선을느리고 엄중한수사를한결과 인흥리유곽에서 다시 발견하고 대격투후체포한것이다

이자는 부내경상리육촌번지 리재경(李載璟)의장남 리시엽(李時燁)으로 리시엽은 평북각지에서 강도미수, 절도행각을하다가 평양에 드러와 부내경상리 어떤술집의 점원으로 잇섯스니 금년사월해고된후 전후 십여회의 강도미수 절도등 경력을 거처어목로 리에 침입한것으로 이밤에도 태흥상회(泰興商會)에 강도로침입할 공작을하다가체포된것이다 이리하여 평양관내의 강도사건중 한건만은 위선 해결을지은터이라한다

沙里院의景勝 景巖樓重修式

【沙里院】사리원 경승(景勝)의 하나인 경암산아래 용립(聳立)한 경암루(景岩樓)는 대정사년에 봉산군청(鳳山郡廳)이 사리원으로 옴마올당시에 건축한것으로 매년오월단오때마다 씨름과 활쏘기(射弓)의 본영(本營)이되여잇든바 건물이 퇴폐하야 중수를 요하든중 당지유지제씨들의 의연으로 이백여원을 거두어 오치묵(吳致默)임섭재(任燮宰)량씨가 중수위원으로선임되여 지난달하순에 중수를마치고 지난십삼일 유지삼십여명이 출석하야 성대한 중수식을 거행하엿다

地方人事

◀趙尙禧氏(前江西郡守)平原郡守로榮轉人事次本報江西支局來訪

◀朴南徵氏(江西稅務署庶務課長)俞州稅務署轉勤人事次本報江西支局來訪

河川敷地貸付反對 萬餘名作人蹶起

死活問題라고關係當局에陳情 —當局의處理를注視—

【韓山】충남서천군한산면화양(華陽)면계(面界)인 금강지류 월산보하(月山洑下)양안에잇는 하천부지 오천보여평을 당지 한산면련봉리에 거주하는 리모(李某)와동면지현리 김모(金某)등 량인이 금번 관계당국에 대부원을 제출하여 목하가방면으로 암약중이라는바 이사실을 탐지한 보내(洑內)작인만여인은 대경실색하야 대표를선정하는일방 관계당국에 반대진정서를제출하는등 자못 적극의 긔세를 올린다는데 이제 그반대하는내용을조사한바에 의하면 전긔하천부지는 당지 저수로 유명한 월산단상송곡보(月山丹上松谷洑)의 배수구인 중요지대인바 여긔다가 만약정단긔간을 하는때에는 보내 수천정보의 요답은 여름철홍수시의 배수가용이치못하야 일대피해를 당하리라는바 관계자일만여명은 금후 당국의 처사를주시중이라한다

洋襪業者團合 洋襪組合創立

【大邱】대구양말업자(洋襪業者)들은 상공도시의 향상책과 아울러 타지방에서 대량적으로드러오는 양말을 방지하고저 대구부내 양말업자 최동인(崔東仁) 정영교(鄭永敎) 리근배(李根培) 재민식(李鎭植) 최덕용(崔德瑢)등 제씨의 발긔로 오는십칠일 오후한시부터 대구부도서관루상에서 대구양말조합(大邱洋襪組合)창립총회를개최하리라는데 이주비회에서는 준비에 분망중이라하며 대구부내에잇서서 매년양말소비

江陵

支局開設記念映畫大會

▲時日 六月十七日午後八時부터

▲場所 江陵邑南大川運動場

◇主催 朝鮮日報社江陵支局

謹告

黃州支局 記者 朴基燦 右依願解任

黑橋支局 記者 李炳烈 右新任

寧越支局 寫眞班記者 曹圭元 右新任

水原支局 集金員 李亨宇 右新任

求禮支局 記者 金庚善 右新任

肅川支局 記者 吳東仁 右新任

新義州支局 記者 尹敏喆 右依願解任

造岳支局 記者 文利周 寫眞班記者 金貞賢 右解任

新昌支局 記者 金壽哲 右新任

社告

今般本社에서左記와如히支局을設置하여사오니照亮하시압

朝鮮日報社白

新昌支局 位置 咸南新昌港 尹泰伸 右任支局長

清津支局 位置 清津府內 支局長 周基洛 右依願解任 / 崔京勳 右任支局長 / 支局長 韓時元 右解任

今般本社에서左記와如히分局을設置하여사오니照亮하시압

朝鮮日報社白

把撥分局 位置 咸南豊山郡把撥市 分局長 李鍾閣

謹告

愛慾의彼岸 【23】

李光洙 作 金康穆 畫

주상의 편지는 이러하엿다ㅡ

『이런 편지를 들이는것을 십히 괘심하게 생각하실줄 아옵고 나치 붉어집니다. 당신께서 이러한 괘씸한 편지를 밧으시기도 처음이러니와 이 사람이 이러한 편지를 쓰는것도 처음입니다. 이사람은 일생에 이러한 편지를 오직 한번ㅡ이번한번밧게는 아니 쓸 결심이옵니다. 이 사람은 이 편지를 쓸까 말까 하고 주저하기를 몃백번, 편지를 쓰다가는 찌저버리고 써서는 레위버리기를 몃십번, 그러다가 아모리 하여도 이 가슴속을 당신께 말슴하지아니할수업서서 이편지를 들이옵니다.

『사람이란 누구나 한번은 사랑을 한다고 하옵니다. 어느 남자치고ㅡ천주교의 신부나 불교의 중을 남겨노코는 여자를 사랑하여보지아니한 이가 업다고 하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당신께 대한 사랑도 그러한 사랑일까요? 그러나 이사람의 생각에는 이 사람의 사랑만은 전에도 업고 후에도업슬것 갓습니다. 저마다 사랑이 이러케 간절하고 괴로운것이라하면 그 사랑을 한번 치르고난 사람이 살아나기가 어렵지아니하겟습니까.

『아니 드는 잠을 시계소리를 천이나 이천씩 세이다가 가까스로 드는 잠을 깨면 곳 눈압헤 나는 이가 당신이십니다. 그러면 자리우에 풀어업드여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야 하나님께 비옵고 또만일 이 마음에 품은 사랑이죄된것이어든 소멸식혀줍소사 하고 하나님께 비옵니다.

『학교에 가는 길에도 꿈꾹마다에서 당신이 나오실것 갓고 교실에 가서 강의를 들으면눈에나 귀에나 마음에나 오직당신뿐이어서 필긔하던 끄틀 이저버리옵니다.

『이래서 어이 하리, 하고 마음을 잡으려하오나 그러케 힘을 쓰면 쓸사록 마음은 당신의 것을 따라서 달리옵니다. 하늘과 땅이 왼통 임이 되고 만다는 말슴을 이제사 깨닷맛습니다. 만일 당신이아니 게시면 이 넓은 하늘과 땅이 텡부이지아니하겟습니까. 당신은 빗이시니 당신이 업스시면 하늘과 땅은 왼통 캄캄한 흑암이 아니 되겟습니까.

『이 사람은 당신을 호흡하고 사는것 갓습니다. 만일 이 천지간에 당신이 아니 계시다면 이 사람은 호흡할 공긔가업서서 죽어버릴것 갓습니다.

『그러나, 혜련아가씨, 이 사람은 다만 이 천지간에 당신과 함께 존재한다는것만으로 만족하고 살수는 업습니다. 자나깨나 몸과 마음이 늘 당신의 겨테 잇고 당신과 하나이 되지아니하고는 살수업는것 갓습니다. 이 말슴이 터럭 끗만치라도 과장한 것이라 하면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십니다.

『그러치마는 이 사람은 당신의 배필이될 자격이 업슴을 잘 압니다. 첫재는 이 사람의 인물이 당신의 배필이 되기에 부족하옵고 둘재로는 이 사람은 먼시골 가난한 농부의 자식으로 남의 도움을 밧아서 공부하고잇는 처지이기때문입니다. 오늘날가티 취직난이 심한 때에 대학을 졸업한대자 처자를 벌어먹일수입을 엇을것 갓지아니합니다. 하물며 이 사람은 의과도 아니오 법과도 아니오 문과, 그 중에도 가장 팔리기 어려운 조선문학과ㅡ이것을 졸업하기로니 나 한 몸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줄을 잘 압니다. 그러한 사람이 어떠케 당신 가트신 이의 배필이 되겟습니까.

『만일 누구든지 이 사람이 당신을 사랑한다 하면 미친 놈이라고 할것입니다. 그러하면서 그런줄을 잘 알면서 당신을사랑하는 이 놈은 어리석은 놈입니다. 아마 절대로 성공못할 사랑인줄을 알면서 하는사랑ㅡ그것은 진실로 괴로운일입니다.

『또 하나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에 합당치못한 사정이잇습니다 그것은 내게학비를 보태여주시는 은인(이사람은 그 은인의 집에 가정교사로 잇습니다)이 무엇을 보고 그러시는지 모르거니와 이 사람에게 그딸님을 허하고십퍼하시는 뜻을여러번 발표하신것인데 이 사람은 아직 승락한 일이 업사오나 그은인댁에서는 이 사람이 학교가 마초면 사위를 삼을것을 마음에 작정하고 계신것입니다」

주상의 편지는 아직도 계속된다。

汗に崩れぬ夏のお化粧

땀에밀리지안는夏節化粧

至今부터 盛夏까지 땀과 더위때문에 化粧이 밀려서 힘써한 化粧이보람이업서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더운날에도밀리지안는다음의 化粧方法을 試驗하십시요!。

먼저나출써손後레ㅡ도구레ㅡ를얼골에잘 바르고 가볍게 맛싸ㅡ지를 합니다 살결이 아름답고 潤滑하게되여 化粧下로는 더말할수업는컨디숀이됩니다。

그우에 레ㅡ도粉白粉을 가볍게 빠후로 濃淡이업시 바릅니다。 白粉下로서 完璧의 레ㅡ도구레ㅡ무의效果와 잘먹는 粉白粉의 效果로 化粧이놀래리만치 潑剌하야 오래갑니다。

이方法은 땀에 밀리지안는夏節化粧의絕對的秘訣로서 아무리多汗症이잇는분도 安心하고 外出할수잇스며 第一無類의 丹粧美로 近代的魅力이 百퍼ㅡ센트임니다。

벗꺼름防止・粉化粧下에!

レートクレーム (레ㅡ도구레ㅡ무)

明朗하고輕快한化粧美!

レート粉白粉 (레ㅡ도)

肌色・濃肌色・オークル・白色 粉各色二五錢・水各色三〇錢

レート化粧料本舖・東京・平尾贊平商店

經濟解說

對濠通商擁護法 輸出入制限, 關稅增徵

濠洲政府의 日本品壓迫에 對한 日本의 報復策은 十二日 關係閣僚會議에서 決定하고 그發動은 時期를 기다리게되엇는데 通商擁護法의 發動은 今回가 두번재로 다시說明할것도업스나 그精神는 貿易調節及通商擁護에 關한件이라는 法律(昭和九年四月六日, 法律第四十五號)로 當初의 施行期間은 三個年이오 明年四月로써 効力을 喪失할것이엇든것을 最近의國際貿易情勢를 考慮하야 特別議會에서 更히三個年期限이 延長되엇는바 同法에依하면 政府는外國이取하고 또取코저하는 措置에對應하야 貿易을 調節하고又는 通商을 擁護키爲하야 特히必要하다고 認할時는 勅令의定하는 바에依하야 關稅調査委員會의 諮問을 經하야期間及物品을 指定하고

一, 輸出或은 輸入의禁止

二, 又는制限

三, 輸入品의價格과 同額以下의輸入稅賦課를行할수잇다

×

通商擁護法發動의 第一回는昨年七月二十日로 相對國은 加奈陀이엇는데 加奈陀는 日本과의 貿易에잇서 日本側으로서보면 加奈陀가 顯著한利益을 엇고잇슴에 不拘코 日本品에對하야 대단한 防遏手段을 講究하얏다 그래으로 日本은 加奈陀로부터의 輸入品인 小麥, 小麥粉, 澱粉, 製材用材料, 包裝用紙及寸法紙, 用紙, 機械用部分品, 木材等에 對하야 一年間을限하야 從價五割의附加輸入稅를 賦課하얏다 擁護法은 徹底한威力을 發揮하야 自由黨內閣成立과共히日本品의 防遏을 撤去키로 되어 昨年末로써 日本도對加擁護法의發動을 撤廢한것은周知의일이다 今回濠洲에 對한 發動은 對加發動과 相異하야 이번것에關하야서 特히注意할 點은

(一) 擁護法의規定하는 輸出輸入制限, 關稅增徵의各方法을 併用한것

이것은今回의對濠擁護法發動에 잇서 日本이徹底的手段에依하야報復效果의 完璧을期코저하는意圖를 充分히發現식힌것이다

×

近時日本品에對한 防遏이擴大하고그背後에는英國이 介在한것으로보이어 今日의對濠關係에잇서서 日本이 消極的態度를取하면 印度 埃及으로 日本의防遏이 擴大할 念慮가잇서

(二) 그다음 小麥의 輸入制限에關하야 日滿通商國은 共同戰線을 布한것

(三) 羊毛가今日까지 濠洲에 獨占되엇던 實質로 日本의原料國販에對하야 充分反省을 促한것

日本이 原料資源에 乏한것은 國土狹小, 人口過剩, 更히日本產業基礎를 輸出貿易에 置하여야하는事實에 照하야 充分히 研究할일이엇는데 今回特히 그必要를 痛感케하얏다 人造代用原料의 製造研究는 一方法이나 更히 原料의 自給도 必要하다 小麥의自給策이 考慮되는것을 생각하면 日本의綿羊飼育의實現도 現在에 잇다

(四) 更히今回의 對濠擁護法發動에際하야 가장特異한現象은 羊毛輸入業者 羊毛工業家等 羊毛輸入制限에依하야 가장重大한 影響을 밧을業者가 가장 滿足한것이다

×

羊毛가 日本의必需原料임을 생각하고 濠洲側은 最後까지 强硬的態度이엇스나 이點은 觀測을誤한것이다 更히消費者인 一般國民大衆이 不利益을 蒙할것은 當然豫想되나 日本貿易의今後의 重大影響을생각할때는 참고잇슬바게업는모양이다.

棉作도用水不足 苗 枯死를念慮

五月中旬까지發芽順調이다가 當局重視出張調査

今年의 棉作은 昨年棉花好調의 뒤를이어 作付段別은 一割이 增加하야 二十三萬町步를넘고 發芽狀況은 若干季節的遲延이지만 五月中旬부터 發芽가 大槪順調로 推移되다가 最近의全朝鮮的인 用水不足으로 各地에 局部的이나마 苗의枯死가 發生할 憂慮가잇다 棉作은大槪旱魃年이 成績이 可良한것이나 發芽로부터 成育期에 弱하야 總督府에서도 그形勢를念慮하고 近間關係官을 主要棉作道에 出張調査케하기로 되엇다

繭共販糸量改正

養蠶業方面에서主張

繭共同販賣의 糸量査定은 正量取引希望을 배어노코 等級糸量으로 되엇는데 그査定糸量은十數年以來 不變으로 最近 養蠶技術의 進步向上을 全然 無視한 傾向이잇고 養蠶業方面으로부터 그合理的改正이 强調되는바 現在의 共販에서는 特等繭은 糸量十二匁, 一等十一匁(春蠶)으로 決定한바 그基準은十年前의 設定으로 現在에는各地의 正量取引糸量을보면 그中에는十五匁의 例外的의것도잇다 모두 近年의 養蠶技術進步에 伴하야 糸量이 向上하고 此際共販에도 그合理的 改正을하게는것이다

米自管法 意見交換

米穀關係者會合

米穀研究會에서는 十五日午後五時 銀行集會所에서 總會를열고 矢島農林局長, 山澤農產課長, 石塚穀檢所長, 吉池技師等의 臨席으로 지난議會를通過한 米穀自治管理法의 內容과 朝鮮適用에 關하야詳細한說明을 聽取하는同時에 米穀關係者로서의 意見을 交換한바 當初에는 米穀研究會員의出席에 限키로한바 米穀自治管理法은 朝鮮으로서 重大問題인으로 右懇談會를 大大的으로하야 米穀에 直接間接의關係가잇는 全朝鮮地主, 取引所 各金融機關의 關係者에도 出席할을勸誘하야 結局八十五, 六名의 多數出席者를 보게될터인데 十六日도 續開할터이라고한다

印棉輸出量增

前年보다二割

【東京十四日發同盟】米棉取引所調査部報는 지난四月中의 印棉輸出高가 四十七萬九千俵에 達하고 昨年同期의 二十八萬九千俵에 比하야 十九萬俵의 激增이며 四月의輸出高는 가장 良好한新記錄을 指稱하고 印棉對外進出에 刺戟될 보힌것으로 注意를喚起한다 四月까지 今季通計九個月間의 印棉輸出高는 二百六十八萬九千俵로 前年同期의 二百二十三萬七千俵에比하야 二割의增大라고한다

產調議案

今月中整備

產業調查會에對하야 大綱協議案의決定後 各局課에서 各各施設計畫案을 맨드러 六月十五日까지 殖產局에 提出키로되엇든바 各產業部門의 全面에亘한 根本的施設案을 맨드러야할것으로 立案되지못하야 大體期限을 延長하야서 六月中旬으로 되엇다 七月上旬中에 이것을綜合하야 政務總監裁임에 第二回準備調查委員會를열고 問題의 調查會委員을任命할 豫定이라고한다

五月末鹽貯藏

專賣局五月末鹽在庫高는 合計一億六千二百三十四萬一千九百八十二瓩으로 倉庫貯藏 一億一千四百七十八萬四千二百五十四瓩, 露積貯藏 四千七百五十五萬七千七百二十八瓩인바 前月末貯藏에 比較하면 二千四百九十九萬七千三百五十一瓩의 增加를 示하얏다

移出港在米數量

百四十一萬五千石

全朝鮮 主要移出港의 十日現在 在米量은 百四十一萬五千八百七十四石으로 前年同期에 比하야 十八萬九千四百四十六石의 增加, 前月에 比하야 二十三萬五千九百九十三石의 減少이엇다 (以下單位石)

日本內地米	一、五九九
正租	三八五、六一四
玄米	九六五、四五八
白米	五八、二二五
糯米	四、九七八

그리고 各港別은 다음과 갓다

	正租	玄米	白米	糯米	計
▲釜山	五六、七九四	一八五、四五八	一二二、八九九	一五六	三六五、三〇七
▲馬山	一二、三九〇	一五、二四〇	四、四八〇		三二、一一〇
▲麗水	八、三四七	一六、二五五	九八〇		二五、五八二
▲木浦	一七、六二六	一二七、二二六	二四六		一四五、〇九八
▲群山	一二四、四六九	一九九、三八一	四、八七五		三四六、七二五
▲江景	九、七九一	一九、二六七	一〇〇		二九、一五八

▲仁川

日本內地米	一、五九九
正租	一二七、三五二
玄米	二三〇、五九五
白米	二八六
糯米	四、八二二
計	三六四、六五四

▲鎭南浦

正租	一〇六、六〇五
玄米	一六七、九二〇
白米	二二、八七三
計	二九六、三九八

▲元山

正租	四、二四〇
玄米	四、一一六
白米	三、四八六
計	一〇、八四二

米倉在米數量 米倉會社

各倉庫十一日現在의 在庫米는 百六萬六千十九石으로 前年同期에比하야 二十三萬千九百六十七石의 增加 前月末에比하야 六萬二千百十石의 減少이엇는데 各港別內容은 다음과갓다 ▲釜山二〇二、一〇九 ▲馬山一五、七五九 ▲麗水二三、五八六 ▲木浦一一一、七九三 ▲群山一八六、五二七 ▲江景二六、四七七 ▲仁川三三五、六七〇 ▲鎭南浦一七九、〇七八 ▲元山三〇、〇七〇 ▲合計一、〇六六、〇六九

馬場財政核心點

長官會議席上闡明

【東京電話同盟】十五日 열닌地方長官會議의 馬場藏相의訓示에 關하야 目下의 大藏當局에서 藏相意見에 基하야 草案을 起草推敲中인데 藏相은 現下의 日本財政은 中央地方을 通하야 全面的으로 再檢討할 必要에 切迫한事態를 보고 從來와가리 首相, 內相等과 同日에 訓示를 안하고 特히 二十日 大藏省所管事務協議會를 열고 그席上에서 訓示를 發表할 豫定으로 財務當局과 地方長官은 一層 緊密한 連絡을 圖함을 希望하나 藏相으로서는 組閣直後 地方長官會議席上 所謂馬場財政의 方針과 時局認識에 對하야 意見을 肝膽하야 牧民官으로서의 覺悟를 必成할터이다 그런데 今議會를 通過한 財政關係諸法律案과 今後十二年度豫算編成에 잇서 具體化할稅制整理와 地方財政調整問題에 對하야 大藏當局의 方針을 說明하고 그圓滑한 遂行에 關한協力을 求할意向이다 即藏相이 右訓示에對하야强調하라는 要點은 다음과갓다

一, 稅制整理=都市와 農村의負擔均衡, 動產, 不動產間의 課稅調整을 圖함 地方稅의 負擔輕減을 期할일

一, 地方財政補整交付金, 今年度實行豫算에 二千萬圓을 計上하고 應急的으로 窮乏町村의 救濟方法을 講究한것인데 將來그恒久的 對策에 對하야는 稅制整理와 併行하야 研究할일

一, 地方費의再檢討=土木事業敎育費等 地方費의 主要한것에 對하야는 國庫의 補助金과 合하야 再檢討할일

一, 金融政策=地方資金의 公平한 配分, 그圓滑한 流通에對하야 預金部 簡易保險信用組合, 銀行, 無盡等 各機能을活用케하야 金融機關의 社會公共的性質을 發揮케할일

一, 議會通過의 法律實施=지난議會를 通過한 財政關係諸法規의 實施에 對하야 地方官廳의 協力이 必要한바 特히大藏省關係의 地方的關聯이깁흔것은 國稅徵收法中改正法, 不動產融資損失補償法, 補助法中改正法, 關稅定率法中改正法等의實施에 留意할일

正租價暴騰

一斤九錢六厘 比前年同期一錢半高

十五日 仁川穀物協會發表에 依하면 仁川標準 正租銀坊主 一斤一等은 九錢六厘라는 驚異的高價를 示하야 昨年同期에 比하면 一錢五厘의暴騰이라고

生絲格差決定

▲橫濱 【橫濱電話同盟】橫濱取引所는 格差查定委員會를열고 生絲六月限受渡에 適用할黃白二十一中의 格差를 다음과가리 決定하엿다

黃二十一中 A格 十圓上 B格 五圓下

白二十一中 A格 十圓上 B格 五圓上 同格

▲神戶 【神戶電話同盟】神戶取引所에서는 格差查定委員會를열고 生絲六月限受渡에 適用할 黃白二十一中格差를 다음과가리決定하엿다

黃二十一中 A格 十圓上 B格 五圓下

白二十一中 A格 十圓上 B格 同格

殖產契中心으로 產組、金組確執

◇……目下繼續中

產組對金組의 事務關係問題는 容易히 解消를 보지못하고 잇는터인데 이에對한 產組關係의不滿이 相當하다 卽最近殖產契新設을 中心으로 財務局에서는 產組를 無視하는態度를 續하고 金融聯의事實上 產組中央金庫의 職能을 가지고잇는 때문에 產組關係側에서는 財務에不滿을表明한다고

朝新六分配內定 咸興支店下半設置

朝鮮信託會社에서는 二十九日午前十時부터 銀行集會所에서 定期總會를 열고

一, 本期諸決算案과 利益金處分案承認의件

一, 故監査役植野勳氏遺族에 弔慰金贈呈의件

을 附議하고 植野監査役의後任은 殖銀理事의 補充을 기다려決定할터이며 咸興支店의設置도 諸準備의事情上來期에 持越키로 되엇는데 今期配當은 年六分據置로 內定하엿다고

經濟界消息

◇濱松繭市勢

出廻 一百五十一貫九百四十匁

高價 五圓十五錢

低價 三圓六十九錢

買戰 四圓六十二錢八厘

掛目 三十四掛

○朝鮮織物二分減配內定=朝鮮織物會社에서는 二十八日 午前十時부터 共益社樓上에서 定期總會를 열고 今期諸決算案과 利益金處分案을 附議할터인데 配當은 二分減配의三分으로하기로 內定하엿다고

金融彙報

○米會法을 中心으로 八十餘名이 모혀 大會를 開催 此所謂 成服後 藥方文

○北鮮, 南鮮, 陰鬱하게 비올기만 하고 人心만 焦燥

○羊毛無用 陸軍側의 擁護法 撤廢 羊毛代用品으로 滿足 그러라하고 一般國民은 代用品으로 滿足할가

商況【十五日】

株式 朝新株만 獨高

前場不變 休日을지난 今前場은 刺戟材料업서 實需價方共히 全然傍觀하야 市勢不動保合이오 夏枯閑散이엇다 即前後引에比하야 東新二十錢高인 百三十四圓三十錢, 朝新三十錢高인 二十七圓三十錢, 北紙二十三圓二十錢에 各大引되고 鐘新百五十八圓八十錢으로 二十錢, 日產七十一圓七十錢 一本이엇섯다

後場朝新高 後場은 朝取米豆部活況으로 業績樂觀買物이나와 朝新이二十九圓五十錢에 暴騰하고 八圓三十錢大引, 東新百三十三圓六十錢에 低落 其他保價의 區區商狀이엇다

夏枯大閑散? 嵐前靜寂?

休日을지난今前場은 閑散靜寂으로 全場東新值幅이 또二十錢이엇다 이가려 無味乾燥하야서는 夏枯期에 入한것이라고하겟다 昭和五年에 東新一場十錢幅이 大阪市場에서 一回가잇섯는바 共히分岐의因이되어 十圓前後二十圓가락變動이잇섯던만큼 이번도嵐前靜寂으로 大分岐가 接近이라고도 볼수잇스나 이것을 그대로當世에適用할가가 問題이다 統制經濟로 投機抑壓時代이오 大衆層이 不動함으로 投機的으로 東新의 陰極陽轉을 바랄수업다는 弱氣的見解에依하면 市勢는 雜株膽買一巡과 相俟하야 下放을期하여야 하겟스나 雜株買一巡에 東新이逆行底堅이고 不伴인것은 或은東新의 强味라고도할수잇는일로 强하게보아야 할것인지도모르다. 夏枯大閑散繼續이냐 陰極陽轉이냐?

東新押目買論 初秋大市勢?

누구나材料를惡으로 解釋하고잇서 雜株가이미事件前 位置에返하얏슴에不拘코 東新만二十圓이나 低位에잇는터이다 그러나 戒嚴令이풀리어 明朗化해지고增稅의 程度가判明되면 그때는「大相場」이 잇슬것이다. 增稅는이미 織込하얏다는說도잇고 增稅의 影響보다 豫算膨脹에 依한 인프레的傾向進이 더큰것임으로 全然下値는 생각할수업고 押目은絶好의 買物일것이다. 그러케되면 北中兩鮮이나 其他 모든것을조흔便으로 생각케될것으로 過去經驗에 大事件後 언제든지 大事件後는 반드시「大相場」이잇섯다. 이번도 二、二六事件으로 一時는 日本財界가 어떠케될것인지 짐작할수업게되엇스나 그러한悲觀이 잇섯는만큼 軍備擴張, 인프레라는 好材料가 잇는것이다. 昨年에도 東新이 百三十五圓과 百四十圓間 十二週間保合後가 이번도保合이 길면길수록 妙味가 만흘것이다.

今日財界 (十五日)

◆米 (單位錢)

	今日止	比前日
仁川期米 先限	三三一	[illegible]低
大阪期米 先限	[illegible]	[illegible]低
仁三等米 一石	三三〇〇	一〇高
京城一等白米	三三〇〇	不變
正租(仁川)一等 一斤	九錢六厘	
一斤價 三等	九錢四厘	

◆市中金銀價

金 一匁賣	十三圓十錢	十三圓〇五錢
銀	十六錢〇厘	十六錢〇厘

◆株 (單位錢)

	今日止	比前日
朝新	二六三〇	三〇高
東新	一三三六〇	四〇低
日產	七一七〇	一〇高

◆商品 (先限單位錢)

	今日止	比前日
大阪綿絲	一九六三〇	一〇低
大阪棉花	[illegible]	一〇高
大阪人絹	[illegible]	[illegible]高
大阪砂糖	三〇四	九高
고무RSS現	[illegible]	[illegible]低

▲日石拂込徵收

【大阪電話同盟】日本石油는 來二十五日 月例重役會에서 懸案의拂込徵收에對하야 協議決定하얏는데 拂込徵收額은 新株(一株額面五十圓內 現在拂込二十圓)八十萬株에對하야 一株七圓五十錢 總額六百萬圓이오 徵收期日은 來九月末乃至十月初로 內定하얏다 右拂込徵收의結果 同社拂込資本金八千萬圓(本年末까지는千六百萬圓)은 拂込徵收額六百萬圓은 尼崎製油所의 擴張資金과 揮發油裝施設完成資金(本年末까지約三百三十萬圓을 要함)其他事業의 資金에 充當할豫定이라한다

實物前場取引

▲大同電力新 [illegible] ▲川崎造船 [illegible] ▲日東紡績 [illegible] ▲同新 [illegible] ▲朝日麥酒 [illegible] ▲京阪電鐵 [illegible] ▲帝麻 [illegible] ▲新潟鐵工新 [illegible] (取引高一八〇枚)

東京國債市場

甲五分利	一〇一、二五
二回四分利	一〇二、五〇
佛貨四分利	一九八、〇五

期米 過買反動 暴落

前場反落 再昨後場阪地三十四圓五十六錢止와共히三十二圓七十錢에 場을止한 市場은一休今朝에入하야 北朝鮮의 雨報와 當地의 曇天으로 賣氣旺盛한데 阪地初付三十四圓五十錢인대 丁反落을 挿하고 買方의 投物과 新規賣物이 續出하야 瓦落을告하엿다

後場續落 後場은 三十二圓五十九錢에 七丁高로 始場이엇스나 大阪低移에伴하야 賣物이 殺到하야 六節三十一錢에까지 暴落되고 三十一錢에 止場하다

株……市勢는大閑散▲그前가트면 陰極陽轉을 바라겟는데 이번에는 嫌氣大投로 最後底入을期하는 軟派가잇는만큼 事情이相異▲더구나 投機時代永去論者가만흐니 딱한노릇▲逆日步工作가튼것이 도리혀東新을 자미업게하는모양▲그러나 惡材料는 이미齋藏하얏고 底堅味가 生긴東新이 반드시大瓦落일가? 가疑問

米……一休今朝의 當地市場은 北朝鮮의 降雨를 機로하야 賣方의 投物과 新規賣物이 簇出하야 場面은 大混雜을 일우엇섯다 ▲第一節實買高는 忽變五萬石 그래서 取引所當局은 祝宴까지 開催▲今朝鮮當地는 二十丁이나 低落됨에 反하야 群山은 三十丁이나 反撥, 此는 全然南上天候의 關係엇다▲그러고 淸算市勢는 二十丁低로 併三等玄米는 十錢反高, 實勢가 如是한즉 當分賣方針은 警戒할일

北朝鮮은降雨 南朝鮮은旱魃

天津附近에잇는 低氣壓이 東北東으로 進行함에따라 北朝鮮에는 處處에小雨를 齎來하야 中江鎭은 四十餘耗 新義州에는七十餘耗의 雨量에達하엿다 此雨報를接한 當地市場은 賣氣旺盛하야 一擧에二十丁瓦落으로 場을始하엿스나 南朝鮮은 旱魃繼續하야 群山과如한市場은 三十丁이나 反撥하엿다 要하면今後大勢는 全혀 天氣如何에따라左右될모양인데 朝鮮의 倉庫라할수잇는 南朝鮮 地方이 旱害가多한즉 北朝鮮의 雨報만에安心하야 賣方針을 取하기는 難하다 今朝仁川觀測所 發表에依하면 西鮮地方은 或處에 떨아 降雨가 잇슬지모르나 南朝鮮은 依然降雨의 可望이어는즉 賣方으로서는 찰아리『모도리』買의 策戰을 할지언정 此邊에서 無慮히 賣却함에는不安이 업지안을것갓다

農家의方針과 政府의態度

本年은 二年繼續의 凶作後인만치 在米의事情의 端境期의 需給難을 免치못할것은 數字가 旣히 證明하고잇슬뿐아니라 植付期에 直面된 今日에잇서 中部以南은 依然旱魃을 繼續하야 植付不能의 狀態에잇스며 日本內地는 梅雨로하며 또한 農家의 不安이 업지아니한모양이다 此現象을보는 農家로서는 賣惜方針을 又一層 憂慮하야 高米價時代의 到來만을 期待하고 잇스며 政府의 態度는 今後 端境期의 米價가 마치 何如할지몰으는만큼 미리부터 大量拂下를 斷行키難한모양이다 그럼으로 大體米價의 高因이 旱魃에만 依한것이아니라 在米의事情이 主因될材가 되어잇슴으로 今後好雨를 當來하야 植付가 完了하고 떨아서 一落이잇다할지라도 一時的 現象으로 結局은 또上放하기十常八九일것이다

仁川在米減少

【仁川】去十三日現在仁川在庫米는 前週에依하야 合格米가 五、一二〇入의 減少로 其他在庫는 細別하면 左記와如하다

▲玄米(政) 一七九、五三〇叺 (民)三八八、四六九叺 五斗入 五、七一三叺 ▲白米 四斗入 一、〇一六叺 五斗入 四〇叺 ▲正租叺入(政)八六、九三三叺 (民)九五、五三〇俵入(政)一八、五九二俵 (民)六一八俵 ▲大豆 二九、五八八叺 ▲小豆 三〇〇叺 大麥(白)二、七二四叺 ▲小麥 一一五四五叺 ▲粉白米四斗入一、九五一叺 五斗入一五三叺 ▲西米一〇七叺(滿)五二五袋 ▲胡麻六五袋 ▲黍四、七八三叺 ▲燕麥八〇〇叺 ▲綠豆二五二俵 ▲糯白米一、二一七叺 ▲台灣米五、五九一袋(日本內地米三、九八袋)

朝取期米取組內容

當限 ◇賣方 ◇買方 [illegible]

中限 [illegible]

先限 [illegible]

各地正米

京城堅調 實物拂底와各地高로 稍히鋼氣로되어 또十錢高唱이엇다 九仁三等三十二圓丁 四等三十一圓七十錢 一等白米三十二圓丁

仁川堅調 小雨降雨로當地期米의引弱이나 各地高로 期米高唱인 探算側의 買物이 繼續되어 更히 十錢高唱인 九仁三等三十二圓四十錢 四等三十一圓七十錢 一等白米十三圓三十五錢

釜山昂騰 市場實物薄이反面賣氣旺盛하야 休日前日보다 更히二十錢昂騰을 告한 角刁三等三十一圓九十錢 四等三十一圓六十錢 一等白米十三圓四十二錢

大邱續騰 實物拂底市況模樣이閑散이나마 品薄高를 目標로한思惑側의 持寄强하야 唱은二十錢續騰을演한 角刁三等三十一圓六十錢 四等三十一圓三十錢 一等白米十三圓十五錢

群山頑强 一般買氣는 依然不活潑이나 移植不安이 逐日濃化하야 市場賣物은 拂底이오 二十錢昂騰을 演한 菱刁三等三十二圓四十錢 四等三十二圓二十錢 一等白米十三圓八十錢

木浦奔騰 產地가漸高이오

趙俊鎬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 米 東 期

光 米 仁川 東益商店 株 京城 金益證券株式會社

株式 米期 柳來恒商店 仁川府本町二丁目 電話 營業案內進呈 朝取取引員

株式 賣買 東 東亞證券 京城黃金町 案內書贈呈

金.銀.白金 京城德力 京城府明治町